

예술영재 청소년의 정신건강연구: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김정희(홍익대학교)
최인호(명지대학교)

발 간 사 ■ ■ ■

정신건강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이후의 삶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업 부담, 불안정한 가족관계, 불투명한 미래 전망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우리사회에 많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과 더불어 개인별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영재청소년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과 성취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최근 영재교육기관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들의 탁월함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할 힘든 과정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영재교육기관의 하나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가 예술영재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술영재교육기관이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예술영재청소년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교육 기관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적응과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영재청소년들이 타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요인들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하위 집단 특성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예중 학생들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영재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민감성, 예술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불안정성, 타이트한 교육과정과 높은 기대수준, 경쟁적인 학교 풍토, 도제식교육의 위계적인 사제관계, 불분명한 예술계 진로 전망 등으로 인해 한예중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나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예술영재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학교리더십의 의지와 지원, 정신건강지원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안전망 강화, 학업 지원 강화 및 교수방법 개선, 학교 내 인간관계 및 풍토 개선, 진로지도,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사회기여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예술영재 청소년, 예술영재 교육기관, 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자살예방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우리사회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영재에 관한 연구는 수학과 과학 분야의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술 영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또한 영재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영재 판별이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지만 영재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적응과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하위 집단 특성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술영재 청소년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교육 기관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예술영재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관련 요인, 해외 예술대학 학생(예술영재) 대상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한예종 재학생, 교수, 상담인력 등 20명을 대상으로 한예종 학생들이 경험한 스트레스 주요 요인과 학교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요구에 대한 면담조사
- 프레임이론과 예방접종이론에 기반한 자살예방메세지 전략 구상

3. 주요결과

- 한예종 학생들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영재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민감성, 예술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불안정성, 타이트한 교육과정과 높은 기대수준, 경쟁적인 학교 풍토, 도제식교육의 위계적인 사제관계, 불분명한 예술계 진로 전망 등으로 인해 한예종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영재청소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힘든 과정의 심리적 부담이나 기타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일만한 정신건강 상태까지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음.
- 자살예방메시지를 구상할 때에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집단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함. 창의성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구상할 때 유머를 사용하여 거부감이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래에 자살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메시지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예방접종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메시지 전략도 예술영재청소년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예술영재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타인뿐만 아니라 예술영재청소년 스스로에게 자신들이 가치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경험을 통해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전략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4. 정책제언

- 1) 학교리더십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장기적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의 중요성
 - 학생들의 정신건강 모니터링 체제 마련을 위한 리더십의 의지 및 지원
 - 장기적인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강화,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2) 안전망 강화

- 상담 및 정신건강지원 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및 기능 강화
- 휴학, 복학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
- 위기 학생 식별 및 초기개입 체계 강화
- 학교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3) 학업 지원 강화 및 교수방법 개선

- 탁월한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건설적인 크리틱 수업 방법에 대한 교수 및 학생 대상 교육

4) 학교 내 인간관계 및 풍토 개선

-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기초 역량 개발

5) 진로지도

- 합리적인 진로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대안적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6)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 창의성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예술영재청소년에게 거부감이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전략

7) 사회기여 기회 확대

- 예술적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성취감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와 공감 경험을 통한 소속감,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4. 용어의 정의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1. 영재청소년의 특징	11
2. 해외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	22
제 3 장 면담조사	67
1. 면담조사 개요	69
2. 면담조사 분석	71
제 4 장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95
1. 자살예방메시지 전략의 중요성	97
2. 프레임이론과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99
3. 예방접종 이론과 자살예방 메시지 전략	105
4. 예술영재 청소년의 역량 강화의 사례	110
5. 소결	112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15
1. 결론	117
2. 제언	120
참 고 문 헌	129

표 목 차

〈표 II-1〉 정신건강 실천계획과 구체적인 내용	23
〈표 II-2〉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과 관련된 일반적인 요인들	27
〈표 II-3〉 대학생의 정신건강 및 자살과 관련된 위험 및 보호요인	28
〈표 II-4〉 교수나 직원들이 인지해야 할 학생들의 행동	39
〈표 II-5〉 교수나 직원들이 학생에게 대처할 수 있는 일들	40
〈표 II-6〉 비평 준비를 위한 자문내용	41
〈표 II-7〉 정신건강 관련 질환과 증상들	49
〈표 II-8〉 정신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웹사이트 정보	52
〈표 II-9〉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화상담서비스	53
〈표 II-10〉 자조를 위한 워크숍 예시	58
〈표 II-11〉 온라인 자조를 위한 자원	59
〈표 II-12〉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기관들	60
〈표 III-1〉 면담참가자 인적사항	70

그 림 목 차

【그림 II-1】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생태적 체계	25
【그림 II-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적 실천계획 도식	26
【그림 II-3】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32
【그림 IV-2】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포스터	102
【그림 IV-3】 미국 자살예방재단의 메시지	103
【그림 IV-5】 일본 해안가 표지판의 자살예방 메시지	104
【그림 IV-6】 Samaritans가 구사하는 자살사고 방지 메시지의 두 사례	105
【그림 IV-8】 Trevor Lifeline의 모범 인물의 내러티브 메시지	109
【그림 IV-7】 손실프레임의 예방접종 메시지	109
【그림 IV-9】 일본 아키타시(秋田市) 인쇄물의 선제논박	110
【그림 IV-10】 HAI와 프린스턴대학교의 911 테러이후 정신건강에의 기여	11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의 정의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¹⁾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월에 영재교육진흥법을 공포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목적)라는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 대상자들을 ① 일반 지능, ② 특수학문 적성, ③ 창의적 사고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기타 특별한 재능에 있어서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우리사회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물도 다수 생산되었으나 영재에 관한 연구는 수학과 과학 분야의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술 영재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영재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영재 판별이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지만 영재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신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의 카이스트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 국내외 명문대학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사건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짐에 따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수한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들도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업 측면의 성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1) 1장의 1절은 김정희 교수(홍익대학교)와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적응과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예술영재청소년들이 타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요인들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인 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하위 집단 특성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술영재청소년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교육 기관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고찰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영재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 및 관련 요인

- 정서적 민감성, 과도한 자기비판, 실존적 우울감 등 개인 내적 요인
- 타인의 기대, 진로, 경제적 여건 등 개인 외적 요인
- 여가, 휴식, 수면, 음주 등 생활방식 관련 요인
- 교우관계, 사제관계 등 인간관계

2) 예술영재교육기관의 환경 요인

- 예술영재 교육기관(한예중)의 교육과정 및 기대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풍토

3)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정신건강지원 현황

- 정신건강지원 관련 학교 정책 및 절차
-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심리검사, 상담, 조기개입 전략 등

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지원 개선방안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풍토 개선 방안
- 자살 예방 등 교내 정신건강 증진 방안 제시
-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구상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예술영재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관련 요인
- 해외 예술대학 학생(예술영재) 대상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내용

2) 면담조사

- 대상: 한예중 재학생, 교수, 상담인력 등 20명
- 내용
 - 한예중 학생들이 경험한 스트레스 주요 요인
 - 학교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3) 전문가 자문

- 대상: 영재교육,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 내용
 - 연구설계
 - 면담조사
 -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지원 개선방안

4)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 프레임이론과 예방접종이론에 기반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구상
- 예술적 재능을 활용한 사회기여 기회 모색을 통한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

4. 용어의 정의²⁾

1) 영재

영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타고 났거나 후천적인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의 빠른 숙달 속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성이 발휘되는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면 일찍 영재성을 나타내는 신동도 있고 영재성이 늦게 나타나는 대기만성형도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영재성을 개발해서 발휘할 영역이나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미성취 영재로 남는 사람도 있다. 또한 영재성이 개발되고 발휘되는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면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오르는 영재도 있고 천재 수준으로까지 오르는 영재도 있다.

그러면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IQ가 사회구조를 지배하다시피 한 20세기에는 IQ가 영재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영재 연구로 유명한 Terman(1925)은 같은 연령의 집단에서 상위 3%에 속하거나 IQ 140이상을 영재로 보았다. Gallagher(1975)는 IQ 116이상을 영재로 그리고 IQ 148이상을 천재로 분류했다. 하지만 음악이나 미술 분야 등에서는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뛰어난 악기 연주나 그림 능력을 보여주는 영재들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능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동기, 자아개념, 지식, 사고유형, 창의성, 성격, 환경, 훈련, 시대정신, 기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지능지수에만 의존하지는 않게 되었다. 영재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특히 창의성이 영재 판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Renzulli, 1993; Sternberg, 1993).

2) 1장의 4절은 김정희 교수(홍익대학교)가 집필하였음.

2) 영재성

영재성이란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영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동기와 과제 집착력,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 요구된다(Renzulli, 1993). 따라서 영재성이란 평균 이상의 지능을 요구하며 이런 능력을 집중적이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Sternberg(1993)는 탁월성(excellence), 희귀성(rarity), 생산성(productivity), 가시성(demonstrability), 가치(value)와 같은 다섯 가지 기준에 근거해 영재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영재성이란 가치가 있고 가시적인 산출물을 생산하는 탁월하고 독특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재성이나 창의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영역 특수성과 영역 일반성에 대한 논쟁이 아직 뜨겁지만 영재성을 영역 특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은 추세다(Gardner, 2002; Kaufman, 2009).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모든 과목에 대한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일 뿐이다. 영재성을 발휘하는 영역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장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영역과 음악, 미술, 무용, 공연 등을 포함하는 예술 영역으로 크게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술영재를 미술영재와 음악영재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3) 예술영재

예술영재란 예술 분야에서 영재성을 나타내는 영재를 말한다. 예술영재란 “예술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뛰어난 ‘예술성’ 을 토대로, 예술적 지식들을 내면화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예술을 찾아가는 능력을 잘 갖춘 사람” 이다(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06). Clark과 Zimmerman(1992)은 지능이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듯이 예술 재능도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예술영재는 학문영재와 비교할 때 높은 IQ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rk et al., 1992; Winner, 1996). 위에서 기술한 영재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예술영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예술영재란 예술 영역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나 훈련을 통한 예술 영역의 숙달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영재는 일반적으로 음악영재와 미술영재로 나누어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lark et al., 1992; Zimmerman, 2003).

음악영재는 대체로 음악적 지각과 인지적 능력을 다루는 음악성은 물론, 높은 음악적 감수성과 상상력 및 표현력 등과 관련되는 창의성, 강한 집중력과 높은 학습 의욕 및 인내력과 자율성 등의 정의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성경희, 1993; 오주일, 2004; Zimmerman, 2003). Dai와 Schader(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음악적 재능은 타고난 재능과 함께 부모의 격려와 지원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한다. 음악영재는 어릴 때부터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며,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고, 즉흥적인 연주를 잘 하고, 뛰어난 음악성을 나타내지만 또한 지속적인 지지와 훈련이 따라야만 그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

미술영재란 모든 미술 활동과 관련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거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미술영재들은 표현력과 감수성이 뛰어나고, 풍부한 직관적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며, 창의적 표현력이 뛰어나다(정은선, 2004). 이용애(2003)는 미술영재란 미술표현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능력, 동기, 창의성, 표현력 등이 평균 이상이고, 이러한 구성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는 미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영재청소년의 특징
2. 해외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영재청소년의 특징³⁾

예술영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속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영재들의 정의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의 목적은 예술영재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 예술영재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 예술영재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재들의 일반적 특성

영재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재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유들 중의 하나는 영재아들은 특별한 도움 없이도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들(Hollingworth, 1942; Terman, 1954)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재아들의 또래관계, 가족관계진로와 적응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Terman과 Oden(1947)은 교사 추천과 IQ 점수를 토대로 영재들을 판별하고 사회성, 정서, 도덕 및 신체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하였다. 1400명 이상 되는 이 영재들은 일반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 높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erman, 1925, Terman et al., 1947, 1959). 이런 연구결과는 영재는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적응을 잘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3) 2장의 1절은 김정희 교수(홍익대학교)가 집필하였음.

게 심어주고 영재에게 높은 학업 및 사회적인 성공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한 편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격이 나쁘거나 신체가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일반적인 편견을 씻어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영재에게 과잉기대를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주게 되었다. 또한 Hollingworth(1942)는 IQ 180이상인 고수준의 영재들은 그들의 성숙도가 지능 수준만큼 발달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적응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재들은 또래들 속에서 자신과 같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사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Dauber와 Benbow(1990)도 고수준의 영재가 좀 더 정서 및 사회성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구에서는 영재아들이 사회적 따돌림, 낮은 자존감, 사회적 민감성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 상상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orrance, 1961; Webb, Meckstroth, & Tolan, 1982). 하지만 실험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실험연구 결과는 영재학생들이 같은 연령의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man, 1994; Richardson & Benbow, 1990; Terman, 1954; Terman et al., 1947). Sternberg와 Davidson(1985)은 IQ와 사회적 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단지 IQ가 극히 높은 (180 이상) 학생들의 경우에 IQ와 사회적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재아들이 또래와의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민감도, 완벽성,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해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영재가 일반학생들 보다 더 잘 적응하거나 최소한 일반학생들보다 적응력이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다만 임상연구에서는 영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IQ180 이상인 고수준의 영재에게서 IQ와 사회적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없었다.

다음에는 영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완벽주의, 불안과 스트레스, 창의성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부분의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재아동들의 심리적 적응은 일반 아동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Austin & Draper, 1981; Schneider & Daniels, 1992). 하지만 Winner(1996)는 25%의 영재 아동이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보통

아이들의 2배나 된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고수준의 영재성을 나타내는 아동들에게 볼 수 있다. 영재성이 매우 높은 아동들은 또래들과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으면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오만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 Hollingworth(1942)도 IQ 180 이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IQ 180이상인 아동들은 단독 활동을 더 많이 하고 IQ 180 미만인 영재들보다 또래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고했다.

Gardner(2002)는 영재들의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혹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영재들이 주로 혼자 생각하고 작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재들 중에서 반사회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영재들을 살펴보면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시기는 생의 초기가 아니라 생의 후기다. 성인이 되어 어떤 영역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창조자들은 그 전문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함께 일하고 서로 지지하는 절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역에서 성공한 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규모가 큰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Gardner, 2002). 또한 그가 획득한 세력과 특권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불러 모으고 그에 따라 자신을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특히 죽음 앞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창조자는 모든 것을 집중시켜 자신의 마지막 작업을 완성시키려고 한다고 했으며 Gardner(2002)는 이렇게 자신의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파우스트적인 거래’ 라고 불렀다.

(2) 완벽주의

영재들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자신만의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Kerr, 1991). 하지만 이에 대한 양적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고 한다(Parker & Adkins, 1995).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에는 부적응적인 면도 있지만 적응적인 기능도 있으며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영재들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영재들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받으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게 된다. 이런 높은 기대감은 영재에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재들은 높은 수준의 성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강화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진원(1992)은 완벽주의와 불안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평가위협이 높은 과제일수록 불안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는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수준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영재아동(권지숙, 2008)과 중학교 수학영재(김혜영, 2008)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재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최근에는 완벽주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면들이 논의되고 있다. 적응적 측면으로는 완벽주의가 성취를 향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자긍심의 유지와 생산성을 고양시킨다는 것이고, 부적응적인 측면으로는 완벽주의가 성취에 대한 강박감,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미성취, 위기의식, 자존감의 저하, 자기비판, 우울, 불안, 심하면 강박증이나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Parker 등(1995)은 완벽주의와 영재아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와 건강한 완벽주의로 구분했다.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는 외재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강한 완벽주의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자신이 스스로 수행 기준을 정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유형의 완벽주의는 부적 정서와 상관이 있는 반면에 건강한 완벽주의는 오히려 정적인 정서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홍혜영(199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자기 효능감, 우울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 결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을 보고했다. 이것은 단순히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고 부적응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서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oberts와 Lovett(1944)는 영재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를 나타낸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Ochse(1990)는 자신의 일에 헌신하고 몰두하는 것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서 영재들이 반드시 일반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영재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불안과 스트레스

완벽주의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영재들에게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했듯이, 영재아들은 일반적인

완벽주의 경향도 높지 않고 완벽주의가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Jacobs(1971)는 평균 IQ를 가진 유치원생들과 평균이상의 IQ를 가진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로르샤흐 잉크반점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재아들이 일반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고, 성인의 승인에 덜 의존하고,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 능력이 높고, 환경의 정서적 압력에 더 민감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재들의 불안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Davis와 Connell(1985)은 IQ가 높은 초등학교생들이 불안도가 더 낮은 것을 발견했다.

사실, 영재아들은 일반아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고 스트레스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Bland, Sowa와 Callahan(1994)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물로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고, 두려움이 적고, 노력하고, 자기 의존적이고, 혼란에 직면해도 자신의 감정을 평정한다고 했다.

영재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영재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외부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정서적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영재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무모하게 애쓰는 경우다. 영재가 외재적 동기에 의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진정한 자기효능감이나 자존감을 가질 수 없고, 자신의 현재 능력에 비해 턱없이 높은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서 결국 스트레스는 더 많아진다. 어린 영재들은 여러 영역에서 특별한 재능과 흥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영재아를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영재들이 외재적인 기준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자신의 능력 수준을 알지 못하거나 불가능한 목표 수준이라면, 특히 어린 영재들은 시간관리 기술과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4) 우울증과 자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울증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자살한 사례들이 뉴스에 보고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재성과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통계나 실험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된 것은 없다. Webb, Meckstroth 등(1982)에 의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경향성을 조사한 결과 자살경향성이 높은 학생들의 창의성이 높고 평균학점도 높았지만 그 조사 당시의 성적은 하락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Kerr(1991)는 자살경향성이 있는 영재학생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했다. 그 중에서 특히 영재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자살계획을 더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재들은 일반적으로 논리력과 표현력이

더 좋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자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영재의 자살의도를 알아채기 어렵다.

(5) 창의성

창의성은 영재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다(Kaufman, 2009; Sternberg, 1993; Renzulli, 2003). 창의성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ternberg, 1993; Kaufman, 2009). 창의적인 영재들의 특성을 Davis와 Rimm(1977)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높은 자신감과 모험심
- 비동조(nonconformity)와 창의성에 대한 자신의 성향에 대한 높은 인식
- 고수준의 에너지, 자발성, 대담함, 감각 추구
- 새로운 활동과 창의적인 취미활동 추구
- 복잡성 선호, 신비함에 대한 매료, 영혼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강한 믿음
- 아이같은 장난스러움, 유머 감각
- 우주와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탐구
- 미술, 음악, 연극 등에 대한 높은 관심

지금까지 영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적 특성 중에서 대인관계, 완벽주의,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창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예술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예술영재의 성격 특성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독특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의 역동적인 조직이다. 여기에서는 예술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 성격 이론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 성격의 5 요인이론으로 빅 파이브(Big Five) 성격 이론이라고도 한다(Goldberg, 1992; Hofstee, de Raad, & Goldberg, 1992). 이 이론에서는 성격을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상냥함, 그리고 신경과민성이다. 이 중 창의성과 가장 상관이 높은 요인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경험에 대한 개방성

빅 파이브 성격 요인들 중에서 가장 창의성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다 (Kaufman, 2009). 경험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서는 환상, 미적 감각, 감정(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행동(새로운 것을 시도, 다양한 관심), 아이디어, 가치관(비관습적, 자유로움)이 있다. 예술영재들에게는 특히 창의적인 활동이 많이 요구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King, McKee-Walker, & Broyles(1996)은 창의성도 높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창의적인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다. Feist(1998)의 성격과 창의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예술가들이 과학자를 포함한 비예술가들보다 개방성이 높았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예술가들보다 창의성이 낮았지만 과학자들끼리 비교해보면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덜 창의적인 과학자보다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감각추구가 있다. Zuckerman(1994)의 감각추구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창의성과 모험 감수로 보고 있으며, 지루함에 대한 민감성, 탈억제(예, 과한 알코올 섭취), 경험추구(새로운 경험에 대한 요구), 그리고 스릴과 모험추구(예, 번지 점프와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 등이 포함된다.

(2) 성실성

Feist(1998)는 과학자와 예술가들 간에 공유하는 특질은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자기 확신이 높고, 자기 수용적이고, 충동적이고, 야망이 있고, 지배적이고, 적대적이며 감정적” (p. 290)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성실성에서는 과학자와 예술가에게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창의적인 과학자가 창의적인 예술가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성실성에서 특히 영역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예술에서는 창의성과 성실성은 부적 상관이 있어서 창의적인 예술가는 성실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과학자는 예술가보다 더 성실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 중에서 비교해보면 더 창의적인 과학자는 덜 창의적인 과학자보다 덜 성실하다. King 등(1966)은 덜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창의적인 성취를 하는데 있어서 성실성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창의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성실성으로 그 부족한 창의성을 보충해서 어떤 창의적인 성취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수준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예술분야 모두에서 성실성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부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성실성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외향성

Leith(1972)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독창적인 반응을 한다고 했다. Silvia, Winterstein, Willse, Barona, Cram, & Hess(2008)는 공연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각 예술을 하거나 비예술 전공 학생들보다 더 외향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Roy(1996)는 화가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내향적인 것을 발견했다. 또한 어떤 연구들에서는 외향성과 영재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Matthews, 1986; McCrae, 1987). Feist(1998)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과학자들이 비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내향적이었다. 한편 창의성이 높은 과학자들은 창의성이 낮은 과학자들보다 더 외향적이었다.

영재들이 때때로 더 내향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재들의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끈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작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가 높기 때문에 사교활동은 물론이고 작업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Davis 등(1977)도 주장했듯이 영재들이 미술, 음악, 연극 등 많은 활동을 좋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향성은 예술영재성과 거의 상관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상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상냥함

상냥함과 영재성이나 창의성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Kaufman, 2009). Feist(1998)는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덜 창의적인 과학자들보다 덜 상냥하고, 예술가들도 비예술가들보다 덜 상냥하다고 보고했다. King 등(1996)은 상냥함은 창의적인 성취와 미미하지만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r=-.23$). 하지만 상냥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수행되지 않았고 연구자들의 관심도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신경과민성

신경과민성과 관련해서는 ‘예술영재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아래 좀 더 상세하게 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3) 예술영재의 정신건강

창의성과 정신병리학적인 요소와의 관련성을 다룬 계열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즉, 두 요인 간에 유사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거나(Heston, 1966), 이와는 반대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Helson, 1999; Maslow, 1973; May, 1976).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창의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분야별로 다르다는 입장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Ludwig, 1995, 1998).

박종화(2005)는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의 영재학생들과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학업동기에서 과학영재와 예술영재 모두 일반 인문계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학업동기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신감에서는 예술영재가 과학영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습양식선호도에 있어서 과학영재는 프로젝트 학습과 독립학습 모두 선호하고, 예술영재들은 특히 독립학습 양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영재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학습 방식보다 독자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숙희(2003)는 문예창작, 디자인, 건축설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창의성에 대하여 연구했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하위 척도인 우울증과 정신증 그리고 전체 총점에서 문예창작 전공 학생들이 건축설계 전공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림창의성 검사에서는 새로운 요소의 첨가, 원근감, 그리고 총점에서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문예창작 전공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창의적인 활동과 정신건강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Helson, 1999, Maslow, 1973)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들 중에 정서장애가 더 많다고 보호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Andreassen, 1987; Jamison, 1989, 1993).

유명한 사람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발표된 연구도 많다. Jamison(1989)는 47명의 영국 예술가와 작가를 면접하고 일반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어떤 형태로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Jamison(1993)는 또한 영국의 작가와 예술가들이 일반인들보다 조울증적 정서장애를 6배나 더 많이 앓고 있다고 보고했다. Nettle(2006)은 시인, 수학자, 시각예술가 그리고 일반인들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들에 비해서 시인과 시각예술가들은 분열형성격장애가 더 높고 수학자들은 더 낮은 것을 발견했다. Ludwig(1995)는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발표된 1,000명 이상의 저명한 인물들의 전기를 조사했다. 그는 Nettle(2006)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술인들(문학, 미술, 연극 등)이 비예술인들(기업, 정치,

과학 등)보다 정신질환을 더 많이 앓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Kaufman(2009)은 시인들이 언론인, 정치가, 배우, 소설가, 시각 예술가들을 포함한 다른 어떤 집단보다 정신질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을 발견했다. 특히 여자 시인들은 다른 유형의 남녀 작가들(픽션 작가, 극작가 그리고 논픽션 작가)보다 자살 시도, 정신병원 입원 그리고 정신과의사에게 진단받은 우울증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여류시인인 Sylvia Plath의 이름을 따서 Sylvia Plath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Kaufman, 2009). 그는 또한 4세기부터 현재 활동 중인 동유럽의 826명의 작가들을 조사한 결과 다른 어떤 유형의 작가들(픽션 작가, 극작가, 논픽션 작가)보다 시인들이 정신질환을 더 많이 앓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Kaufman, 2005).

또 다른 연구들은 작가들이 예술인을 포함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발견했다(Ludwig, 1995; Simonton, 1975). 약 2,000명의 미국, 중국, 터키 그리고 동유럽 작가들에 관한 대단위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시인들이 픽션 작가와 논픽션 작가들보다 네 가지 문화 모두에 걸쳐 더 젊은 나이에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Kaufman, 2003).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시인들이 모든 작가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다(Ludwig, 1995; Simonton, 1975).

천재 연구로 유명한 Simonton(2009)은 천재는 정신이상자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천재성은 광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재는 일반인보다 정신병의 발병 비율과 강도가 높다.
- 천재성이 높을수록 정신병이 나타날 비율과 강도가 높지만,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해도 정신병의 수준은 정신이상자보다 낮다. 사실 천재의 작품은 그 천재가 완전히 정신이상을 앓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 정신병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흔하다.
-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많은 가계는 천재의 비율도 평균이상이다. 따라서 한 천재에게 작은 정신병이 없다고 해도 그의 가족 중 누군가 정신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을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의 아들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정신병원에 간 것은 분명하다.
- 영역에 따라 다르다. 시와 같은 영역에서는 정신질환이 만연한데 자연과학자들에서는 일반인들보다 높지 않다.
- 정신병으로 나타날 경향성은 어떤 증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개인의 다른 성격 특성에 의해 거의 다 상쇄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제정신이 아닌 생각도 기이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예방하는 날카로운 지성과 강한 의지다. 병리의 증상은 따라서 두려워할 위험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자원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회정서적 적응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문화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천재들의 일생을 정신병리와 관련시킨 문학작품이나 영화들을 많이 접할 수 있듯이, 전기 자료의 임상관찰을 기초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작가, 예술가, 그리고 시인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정서적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일반 사람들이 널리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상세한 논의는 Simonton, 2009 참조).

최근에는 영재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입장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다. Ludwig(1995)은 1,005명의 정신적 정서적 질병률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불안장애, 자살 등과 같은 정신병리적 유형은 다른 직업에서보다 예술분야의 직업영역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Ludwig(1998)은 예술가들 중에는 정신병리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만 창의적인 과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술적 창의성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과 전달, 심각한 개인적 갈등, 약물에 의한 현실왜곡 혹은 심지어 통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정신병적 망상 등이 포함되겠지만, 과학적 창의성에는 그러한 것들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영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예술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특히 예술영재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달과정에서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재성을 발휘하는 분야나 영재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술영재들 중에서도 활동하는 예술 영역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살펴보았다.

영재교육이 수학과 과학 중심의 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예술영재의 정서,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및 학교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일은 예술영재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영재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영재성의 영역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예술영재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2. 해외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⁴⁾

본 장에서는 예술영재 교육기관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외국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한예종 학생들의 인터뷰내용에도 나타났듯이 이들 예술영재학생들은 창작과정에서, 그리고 수업 중 필수적인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 등으로 일반 학생과는 다른 특별한 고통이나 괴로움도 경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접근과 더불어 예술전공학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정신건강 이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대학생의 캠퍼스 내 정신건강문제와 자살시도 등에 대해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왔고, 예술계열 뿐 아니라 일반대학에서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개별학교 수준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의 정신건강개선과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다. 그중에서 특히 Jed Foundation과 같은 재단⁵⁾은 대학 내 정신건강과 자살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초연구와, 개입방안 및 실천들에 대해 많은 관련 내용들을 개발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배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중 최근에 교육개발센터(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⁶⁾와 함께 공동 개발하여 발표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의 주요내용을 우선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서구의 우수 예술계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예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술계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1)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대학 내 실천계획⁷⁾

대학생의 정신건강증진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한 가지 예시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캠퍼스의

4) 2장의 2절은 김희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5) The Jed Foundation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재단설립자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학생의 심리·정서적인 건강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정신건강전문가와 대학생들, 학부모, 대학교,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있다.(<http://www.jedfoundation.org>)

6) 교육개발센터(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는 세계적으로 교육, 건강, 경제적 기회영역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배포 및 평가하는 세계적인 비영리기관이다.

7) Jed Foundation과 교육개발센터(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배포한 대학정신건강지원계획 가이드(A guide to campus mental health action planning(2011)의 내용을 일부 발췌·요약하였다.

<http://www.jedfoundation.org/professionals/programs-and-research/campusmhap>

정신건강실천계획 지침”(A guide to campus mental health action planning)은 먼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캠퍼스에 준비되어 있어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보고한 대학생 중 적은 수만 치료를 받으며(Eisenberg, Golberstein, & Gollust, 2007a), 상담센터 관계자들은 자살로 사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담센터의 내담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Gallagher, 2009). 따라서 현재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히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적 위험요소를 다루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Davidson & Locke, 2010; SPRC, 2004).

이러한 대학에서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접근에는 반드시 예방과 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실천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의 <표 II - 1>과 같은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Institute of Medicine, 1994; National Research Council & Institute of Medicine, 2009).

표 II-1 정신건강 실천계획과 구체적인 내용

정신건강 실천계획	구체적인 내용
모든 학생의 건강 증진 촉진 (enhance and promote health of 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응과 건강 및 복지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 강화
일차적 예방(primary pre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들의 위험요소 감소 및 보호요인 개발
초기인식과 개입 (early recognition and inter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문제의 악화와 예상되는 결과(심각한 정신질환, 학문적 또는 사회관계성에 있어서의 문제, 자살행동 등)를 예방하기 위해 개입
치료(trea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 ○ 자살위기에 있는 학생 확인
유지(mainte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재발이나 악화를 줄이기 위한 개입 및 사후 보호(after-care) 제공
사후예방대책(Post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위기나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나 전략 개발

※ 출처 :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2004). Promoting mental health and preventing suicide in college and university settings. Newton, M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

또한 효과적인 캠퍼스 내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개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Langford, 2004).

- 학생의 반응에 초점을 둔 예방집중적인(Prevention-focused) 개입
- 다양한 행동과 위기 및 보호요인, 모든 캠퍼스 내 구성요건과 캠퍼스 내 · 외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Comprehensive) 개입
- 설계 및 수행, 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활용한, 계획적이고 평가를 받은(Planned and evaluated) 개입
- 문제와 강점(assets)에 대한 조사(assessment)를 통해 확인된 우선순위문제(위험 및 보호요인)를 고려한 전략적이고 목표에 맞는(Strategic and targeted) 개입
- 최근의 관련 문헌과 이론에 영향을 받은, 연구에 기초한(Research-based) 개입
-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 복합적인(Multicomponent) 개입
- 상호보완 및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잘 조화되고 상승효과를 지닌 방식
- 학내 주요 이해당사자와 전공학문을 포함한 다분야의 공조적 개입(Multisectoral and collaborative)
- 사회기반시설, 제도 및 체계가 뒷받침된 방식

이 캠퍼스 내 정신건강실천계획을 위한 지침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크게 ‘계기(momentum) 마련과 기반시설 구축’, ‘전략적 기획과정에 참여하기’,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전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기 마련과 기반시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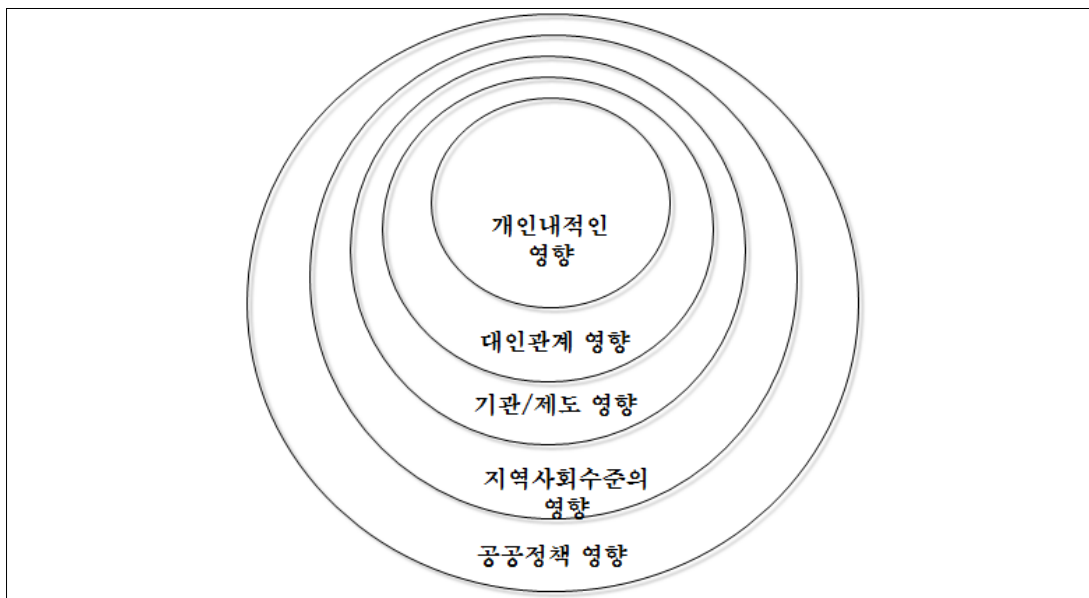
‘계기(momentum) 마련과 기반시설 구축’ (Engaging in a Strategic Planning Process)은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노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정책들을 개발·수행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장/총장과 같은 고위관리자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대학직원들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학내 관리자, 직원, 교수 등)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대응팀(task force)에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대응팀(mental health task force)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이루기 힘든 변화들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동의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연합체 성격으로, 이 팀은 전략적인 기획과정에 참여·지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감독할 수 있다. 이 대응팀에는 상담센터의 책임자와 학생처, 보건서비스와 같이 학생들과 자주 접촉하는 부서의

대표를 포함하며, 건강과 복지 및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책임자로 공중보건접근(public health approach) 경험이 있는 인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과 복지를 위한 대응팀의 임무는 정신건강프로그램, 서비스 및 학내문화의 초기조사(assessment)를 포함한 전략적인 실천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신건강 대응팀은 기존의 자료수집과 우선순위 및 또 다른 더 복잡한 학내문제에 대한 목표 설정에 1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팀 리더는 변화매개체로서 팀원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자질뿐 아니라 협력체계 구축, 전략적 사고와 기획 및 프로그램 수행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응팀과 학교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데,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과 같은 이슈를 공개적으로 다루게 되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

(2) 전략기획과정에 참여

‘전략기획과정에 참여하기’ (Engaging in a Strategic Planning Process)는 교내의 기획자들이 학생들 사이의 위기요소를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종합적·협력적인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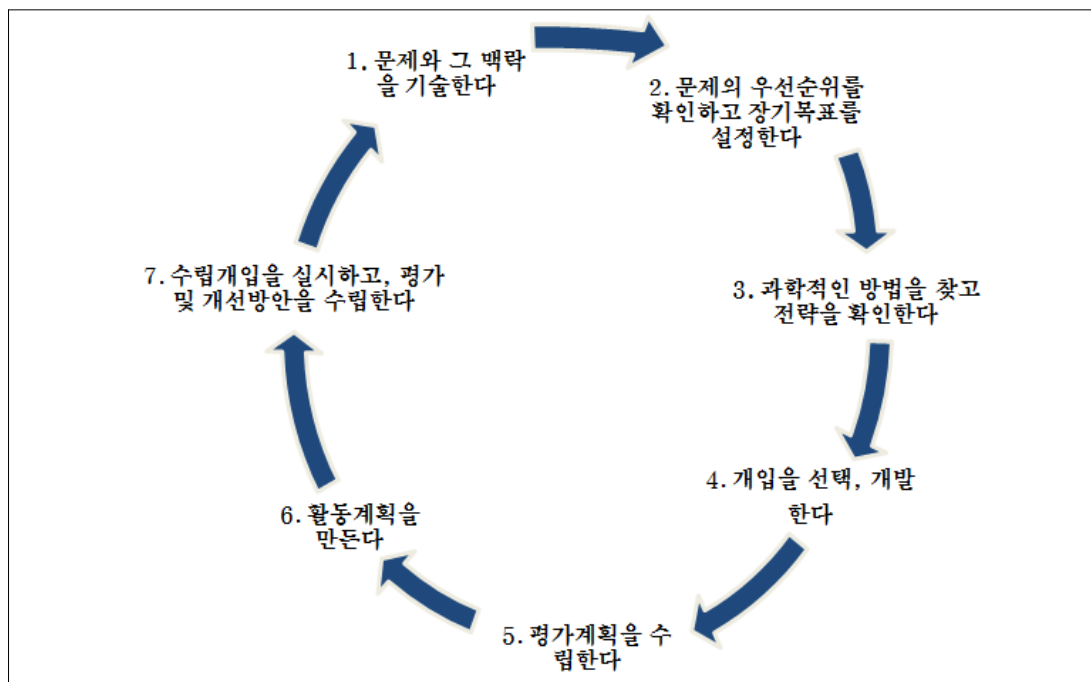


※ 출처 : Jed Foundation · EDC (2011). A guide to campus mental health action planning, p.8.

【그림 II-1】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생태적 체계

종합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프로그램은 【그림 II-1】과 같이 사회생태적체계(social ecological framework)로서 알려진 개인내(개인적인), 대인관계(집단, 또래, 가족), 기관 및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정책 등 다양한 수준의 영향 요인들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DeJong & Langford, 2002; Langford, 2006).

정신건강서비스는 학교 상담센터의 도움을 찾지 않는 학생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학교문화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략적이고 잘 계획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기획자가 교내 문제와 관련 프로그램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개발가능하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실천계획을 보면 【그림 II-2】의 도식과 같으며, 각각의 실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처 : Jed Foundation · EDC (2011). A guide to campus mental health action planning, p.9

【그림 II-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적 실천계획 도식

① 문제와 그 맥락 기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학교의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학교의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관련된 위험·보호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되었는지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내분위기와 또 다른 맥락적 이슈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조사, 초점집단인터뷰나 일대일 면접(학교교원,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를 보완하고,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리고 기존 자원들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조사와, 변화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기관 관련 요인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표 II-2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과 관련된 일반적인 요인들

관련 요인들	내 용
개인요인	정신질환, 도움요청, 치료의 효능에 대한 태도와 믿음에 관련됨. 생물학적 요인과 가족사, 문제해결, 관계, 갈등해결 기술 등이 해당되며, 이 수준의 영향을 다루는 전략은 개인적 행동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됨..
대인관계 절차	자살 또는 도움추구 행동에 관한 집단규범, 곤경에 빠진 개인에 대한 반응,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등이 해당되며, 이 수준의 영향력을 다루는 전략은 상호간 사회적 지지를 증진하는 것임.
기관/조직적 요인	정책과 과정, 자해나 자살방법(도구) 유무와 이용가능성, 질적 수준이 담보된 정신건강서비스에의 접근성, 높은 수준의 술 소비 등이 관련됨. 이 수준의 영향력을 다루는 전략은 개인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관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임.
지역사회요인	수준 높은 정신건강서비스에의 접근성(예, 외래환자, 입원환자, 긴급입원 등)이 해당됨. 이 수준의 영향력을 다루는 전략은 기관, 집단/가족/또래친구의 행동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도록 기획하는 것임.
공공정책과 사회체계의 영향력	연방 및 주정부의 특정지역에서의 자해와 관련되는 치명적인 도구의 금지, 건강보험, 비밀보장과 관련된 법과 규제 등이 해당되며, 정신건강문제를 경멸하거나 자살행동을 미화하는 미디어의 이미지와 같은 문화적 원인제공자 등이 관련됨(DeJong et al., 2002). 이 수준의 영향력을 다루는 전략은 지역사회, 관계기관들, 그리고 전체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

※ 출처 : McLeroy, K.R., Bibeau, D., Steckler, A., & Glanz, K. (1998).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health promotion programs, Health Education & Behavior, 15(4), 51-377.

② 문제 우선순위 확인 및 장기목표 설정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기 및 보호요인, 그리고 잠재적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획자는 〈표 II-3〉과 같이 사회생태적 모델 전반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잠재적인 자살수단(실험실의 화학약품, 옥상, 총기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바꾸는 것은 자살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 목표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는 학생 수 증가’, ‘옥상접근 제한’, ‘위기대응정책에서 직원의 역할 명료화’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하고,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와 변화를 일으킬 시기와 측정방법을 포함해야 한다(Chinman, Imm, & Wandersman, 2004).

표 II-3 대학생의 정신건강 및 자살과 관련된 위험 및 보호요인

구분	위험요인	보호요인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정신적-사회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의 자살시도 경험 - 정신질환 - 만성적 신체질환 - 알코올이나 약물 오·남용 - 절망상태/충동성이나 공격성 ○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치료에 장애가 되는 요소 - 소외, 사회적 지지의 부족 - 재정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 치료에 대한 낙인 -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용이성 - 자살을 정상으로 보거나 미화하는 미디어 ○ 인구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로 인한 사망 경향이 높은 집단: 남성, 백인, 원주민인디언 청소년 - 자살시도 경향이 높은 집단: 여성, 히스패닉 여자청소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밀한 가족관계나 지지적인 관계 - 효과적인 임상치료 접근 용이성 -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차단 - 문제해결, 갈등해소 기술 - 욕구불만에 대한 내성, 정서 조절 능력 - 미래, 대처능력,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 자살을 억제하는 문화적, 종교적 신념
정신건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가족관련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실패 - 정서적 미성숙/고독감/개인적 상실 - 과도한 약물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가족관련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대처능력 - 적응력/자율성/자아존중감 -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갈등 - 낮은 수준의 직업기술과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 - 사회적 기술 부족 -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 경험 ○ 사회적, 환경적 결정요인 - 약물과 알코올에 대한 접근 용이성 - 고립과 소외/ 또래 배척 - 업무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인생에 대한 통제감 - 문제해결 기술 - 사회적 갈등 관리 기술 - 스트레스 관리 -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지지 ○ 사회적, 환경적 결정요인 - 긍정적 대인관계 상호작용 - 사회적 참여 - 사회적지지 및 지역사회 관계
--	--

※ 출처: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2001; Institute of Medicine, 1994 & 2009.
<http://www.jedfoundation.org/professionals/programs-and-research/campusmhap>에서 재인용.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캠퍼스에서 24시간 임상개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자살위기나 정서적인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자살예방생명전화(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와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직통전화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홍보할 수 있다.

③ 과학적인 방법 및 전략 확인

앞서 언급한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시간과 자원을 확실히 투자하기 위해서는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s)이 중요하다. 캠퍼스와 지역사회 개입에 대한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학교의 전문가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거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고한 경험적 또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와 해당 캠퍼스의 특정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 개입방법의 선택 및 개발

최선의 개입 방법을 찾고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자가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기획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확한가?’, ‘프로그램이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한 메시지 전달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 ‘프로그램 내용이 기존의 문헌연구나 행동이론에

기초하고 있는가?’ , ‘ 프로그램 평가가 수행되었거나 그 결과에 따라 수정되었는가?’ , ‘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 활동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논리모델(a logic model)⁸⁾을 만들었는가? (SPRC, 2004)’ 등이다.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기획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련 활동,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나 개입 등이 어느 정도로 설정된 목표나 목적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⑤ 평가계획 수립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의도된 결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원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평가는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Langford, 2004).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문적인 평가자(공중보건, 보건교육, 심리학, 사회사업학의 교수진)를 이 프로젝트팀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Langford & DeJong, 2001).

⑥ 실천계획 수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정리하고 이 과업의 책임자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 수 있다. 실천계획은 향후 일어날 모든 행동과 변화, 이러한 변화를 수행할 사람들, 변화의 발생시기와 지속기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자원(비용, 직원),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등에 대해 뚜렷한 윤곽을 제시해야 한다.

⑦ 개입 수행 및 평가 후 개선방안 수립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주어진 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문제의 숨어있는 원인들과

8) 논리모델은 계획된 각각의 활동이 장기적인 목표(즉, 정신건강문제, 자살행동이나 자살 감소 등)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도식이다(Langford, 2004). 논리모델을 활용해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개별 활동이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과학적인 이유 및 변화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Chinman et al., 2004). 전략적인 기획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며, 프로그램이 계획에 따라 잘 수행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이때 과정평가⁹⁾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Chinman et al.,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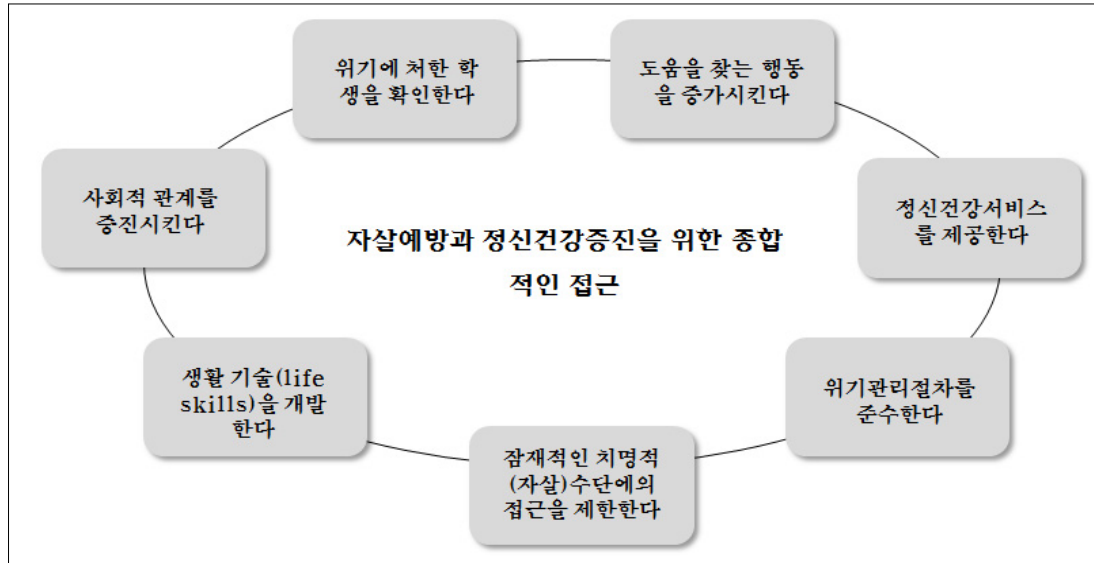
(3)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전략

이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전략’ (Strategie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and Preventing Suicide)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다룰 수 있는 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예방 전략은 앞서 제시된 사회생태적 모델의 다양한 수준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활동, 정책, 개입을 함께 추진할 때, 어떤 한 가지 노력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노력이 지속가능하게 해준다.

Jed Foundation과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SPRC)¹⁰⁾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캠퍼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현재 최고의 개입방법에 기초한 대학생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고안했다. 이 방안은 미국공군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림 II-3】 과 같은 전략적 개입의 7가지 영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현재의 정신건강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행동과 자살을 예방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자들은 먼저 대학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와,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7가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와는 달리, 프로그램 수행을 점검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어떠한지, 프로그램 수행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로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SPRC)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일하게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센터이다. 이 센터는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자살예방실천가와 전문가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적 지원, 훈련, 그리고 자료들을 제공한다.



※ 출처 : Jed Foundation ·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09). Comprehensive approach to suicide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promotion

【그림 II-3】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① 사회적 관계 증진

학생들이 강한 사회적지지를 경험하면 소외감이 감소하고 소속감이 증진된다. 또 큰 규모의 학교공동체내에서는 상호 연결된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노력은 개별 학생들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교수요원, 직원들과 자주 접촉을 하게 될 경우 곤경에 처한 학생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② 학생들의 생활기술 개발 지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문제는 우울증과 자살행동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Drum, Brownson, Denmark, & Smith, 2009; Eisenberg, Golberstein et al., 2007a).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은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학생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돕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Indiana University Center for Postsecondary Education, 2009). 하지만 대학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지적인 것 이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기술¹¹⁾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캠퍼스에서 신입생을

11) 중요한 생활기술로는 대인관계 의사소통/인간관계(관계형성), 신체적 건강/건강유지, 문제해결/의사결정(정보 조사 및 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생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건강교육워크숍을 제공하기도 한다.

생활기술 발달에 대한 관심은 상담센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 속 문제에 초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

③ 위기에 처한 학생 확인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정신건강문제의 초기 신호를 보이거나 자살위기에 있는 학생을 찾아낼 책임이 정신건강전문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캠퍼스는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 위기에 처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위기수준이 높거나 잠재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학생을 찾아내고, 학생들이 도움을 받도록 격려하고 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입생이 작성하는 의료관련 양식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항들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문제가 있거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가려내는 학교차원의 활동(Screening for Mental Health' s College Response program, National Depression Screening Day)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일차적인 서비스를 찾을 때 우울증 증세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가려낼 수 있다(Chung & Klein, 2007; Klein & Chung, 2008). 넷째, 치료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확인해서 찾아내기 위해 학교의 관련 행정절차와 정신건강 서비스사이의 접점을 찾는다.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는 게이트키퍼 훈련은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확인하고 외부에 도움을 받도록 의뢰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전략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지식과 태도 및 기술을 개발하고, 위기수준을 결정하며, 필요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의뢰하는 것이다(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④ 학생들의 도움 찾기(help-seeking)행동 증가시키기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 중 많은 수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나 지지적인 성인으로부터의 도움을 찾지 않는다(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09; Drum et al., 2009). 기존

석하기, 문제확인 및 해결, 목표설정, 시간관리, 갈등해소), 자아정체감 발달/ 인생의 목적(개인적, 정서적 정체감에 대한 인식 개발, 자아존중감 유지, 가치명확화, 삶의 의미 개발)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Picklesimer, Hooper, & Ginter, 1998).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도움을 찾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정신건강서비스나 건강보험내용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치료의 효과성을 의심하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성장한 경우등을 포함하고 있다(Eisenberg, Golberstein, & Gollust, & Hefner, 2007b). 낙인(stigma)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Jed Foundation & mtvU, 2006).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도움을 찾는 행동을 촉진하거나 이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고려해서, 브로셔, 포스터,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포함한 의사소통 캠페인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과는 기꺼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점을 활용하여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이나 또래교육프로그램(peer education program)을 제도화하기도 한다.

⑤ 잠재적인 치명적 자살 및 자해 수단への 접근 규제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살도구는 총기와 약물과다복용이다. 자살 및 자해수단 규제는 학생들의 자해를 조장할 수 있는 장소, 무기나 매개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건물옥상에 담장을 세워서 접근을 금지하거나 유리창 교체 및 유리창이 열리는 크기를 규제하고, 실험실의 화학물질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거나, 무기 금지 및 알코올과 기타 약물 사용을 규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의 특별한 환경이 이러한 자살수단 및 유형의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학교들은 치명적인 자살/자해 수단への 잠재적인 접근과 관련된 학교환경에 대해 공식적인 정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서는 가장 흔한 자살수단에 대한 학교 및 국가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시설관리, 학교안전위원회, 학생집단과 함께 공조할 수 있으며 다른 대학의 무기관련 정책을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자살시도에서 목을 매는 행위 역시 가장 흔한 방법이므로 학교기숙사의 옷장 막대기를 없애는 것까지 조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미국의 고등교육센터(Higher Education Center)에서는 학교환경의 주요 요인으로서, 적절한 사회적 활동이나 여가의 부족, 정규 교과외의 선택과목 부족과 이에 대한 인식부족, 폭음이 대학생들의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인식, 주류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 전략, 캠퍼스 안팎의 많은 음주 기회, 학교정책과 지역사회와의 관련법 미비나 불일치 등을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⑥ 효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들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거부감이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대응할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Silverman, 2008). 상담 및 건강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담센터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치료사(therapist)를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존하는 직원들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전달을 강화할 수 있다.

- 신속한 조사(assessment)와 더불어 교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기 위해 전화나 직접면담을 통해 간단히 당일 약속을 잡는다(심각한 문제를 가진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단시간에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 정신건강 임상가는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와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며, 목표지향적이고 시간제한 치료양식(time-limited treatment)을 사용한다. 또한 자살위험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학생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관련법과 전문가지침에 대해 훈련받는다.
- 정신심리교육 워크숍이나 강의, 자조(self-help)정보 개발, 도움추구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미디어 캠페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파견(outreach)를 담당하는 복지/건강 증진 직원과 파트너십을 갖는다.

⑦ 위기관리절차 개발 및 준수

학생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교공동체의 요구와 안전을 다루는 학교관리자 및 직원들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자살위험이 있는 대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틀을 활용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우 힘든 상태에 있거나 자살성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대응 (요약)

1. 대학에서는 고위관리자(학과장, 부총장)와 다른 학교관계자(기숙사 룸메이트, 또래, 교수 등)가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2. 정신건강전문가가 자살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 학생에 대한 개입절차는 무엇인가?
3. 잠재적인 위기학생이 발견될 때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한가?
4. 정신건강위기 시 개입되는 지역경찰이나 의료인력(응급의료서비스)과 양해각서(MOU), 또는 다른 형태의 합의가 있는가?
5.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거절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출처 : Jed Foundations(2006). Framework for Developing Institutional Protocols for the Acutely Distressed or Suicidal College Student

위기관리절차에는 다른 학생들의 자살 때문에 슬픔과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다른 학생에게 ‘자살전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후개입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Davidson & Gould, 1988). 사후개입은 관련이 된 학생과 학교 전체 공동체를 돕도록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슬픔과 회복과정을 돕는 공동체지지모임을 갖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 외국의 예술계대학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사례

외국의 예술계 대학들이 제공하는 정신건강관련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예술대학의 순위를 확인하여, 높은 순위의¹²⁾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교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그 중 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학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절에서 유의미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사례로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은 줄리어드 음대(Juilliard School),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온타리오 예술·디자인 대학(Ontario College of Art and Design University), 런던예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시카고 예술학교(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이다.

12) 우리나라에서 높은 수준의 예술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한예종과 유사한 위치의 학교의 경우 역시 학생들의 경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학교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줄리어드 음악학교(The Juilliard School)¹³⁾

미국의 유명 음악학교로 알려진 줄리어드 음대는 ‘줄리어드 건강 및 상담서비스(The Juilliard Health and Counseling Services)’를 통해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건강보호와 심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연하는 예술가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음악학교의 엄격한 학문적 기준과 공연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줄리어드 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줄리어드 건강 및 상담서비스’는 자기관리(self-care)와 예방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의학적 상태, 상해의 예방 및 진단,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질병/상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최고수준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리치료와 더불어 의료적 치료와 예방적인 보호를 함께 제공한다.

상담서비스는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정신건강 필요에 맞도록 정신/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나 상태에 대해 치료 전문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담서비스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발달, 자기인식,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 명의 임상디렉터와 8명의 정신심리치료사, 그리고 약물처방을 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기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교수진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교수진 멘토링 프로그램(The Faculty Mentoring program)은 생각이 비슷하되 다른 예술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진이 학생과 짝을 이루어 예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삶의 다양성의 즐거움과 모험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멘토와 학생은 일대일 관계로 뉴욕시의 예술적인 것들을 탐색하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한다. 또한 예술적인 삶의 폭(breadth)과 즐거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많은 공연과 특별한 이벤트 티켓이 포함되어 있는 무료 이벤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멘토는 참여하는 학생과 함께 배우는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면서, 학생의 욕구와 흥미에 호응하게 된다.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The Professional Mentoring program)은 3~4학년의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예술학습의 현안(arts-learning agenda)이나 진로와 관련한 특별한 목표를 갖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한다. 이 프로젝트들

13) <http://www.juilliard.edu/student-life/health.php>

에 받아들여진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학생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뉴욕 예술 공동체의 전문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교수진 멘토와 조를 이루게 된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신청을 하고 면접에 응해야 한다.

(2)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SD)¹⁴⁾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 역시 예술 및 디자인 분야에서 명성이 높는데, 이 학교의 ‘학생발달 및 상담서비스’ (Office of Student Development and Counseling Services, 이하 SDCS)는 학생들의 정서적 기능과 대인관계 및 학업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SDCS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SDCS는 학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교수들이나, 학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에게 정신건강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며, 대학공동체내의 정신건강을 교육하고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아웃리치 행사를 후원한다.

SDCS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학교생활 중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상담서비스가 학업에 방해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로는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염려, 불안, 가족문제, 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섭식장애, 성, 향수병, 슬픔과 상실,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학생이 잘 대처하도록 상담자가 도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SDCS의 상담은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긴급한 문제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기 치료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만약 장기치료가 요구되지만, 학교에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없을 경우 외부 자원에 의뢰해 준다. 학교 내의 약물처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근의 의사에게 외부 위탁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 긴급한 정서적 고통, 타인을 해하려는 생각, 성폭행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연락할 곳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특히 SDCS는 교수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잘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는

14) <http://www.risd.edu/>

위치에 있다고 보고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SDCS는 교수나 직원들이 <표 II-4>와 같은 상황의 학생들의 행동을 알아차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4 교수나 직원들이 인지해야 할 학생들의 행동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 알아차리기	행동 및 대인관계 문제	자살, 살인이나 죽음에 대한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수행이나 행동에 있어 두드러진 변화가 있음 - 평소와 다른 형편없는 수행과 준비도 - 지나친 결석과 지각 - 기능적 측면에서 이전 수준과 달리 변화를 보이면서, 특별한 배려에 대해 요청을 반복함. - 토론을 회피하거나 독점함. - 호명하여 무언가를 시킬 때 과도하게 불안해 함. -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 - 강렬한 정서적 반응이나 부적절한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원조를 교수에게 요청함. -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불만제기 - 주의력 결핍장애이거나 말이 매우 빠름. - 울먹임. - 화를 잘 내거나 분노를 폭발함. - 룸메이트나 가족과의 문제 - 개인위생이나 의복 변화 - 심각한 체중증가나 감소 - 이치에 맞지 않는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력이나 절망 표현 - 공공연한 자살 언급 -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 - 말이나 글쓰기에서 자살이나 살인 언급

교수나 직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이한 행동을 할 때 신속히 도움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학생들에게 <표 II-5>와 같이 대처할 수 있다.

학생들을 상담서비스에 의뢰할 때 교수들이 교내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다. 위기상황이 아닐 때는 학생으로 하여금 상담서비스에 직접 연락하여 초기면접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학생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수의 사무실에서 전화하도록 하거나 함께 상담서비스를 방문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을 상담서비스에 학생을 위탁할 때, 근무시간 중에는 상담자에게 직접 구두로 이야기하고 학생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상담자는 교수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지원하며, 당장에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당일 약속을 정한다. 만약 근무시간 외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교내의 안전/치안 담당자(Public Safety)에게 연락하고 상담자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또한 만일 학생이나 다른 사람이 위험에 임박해 있고, 교수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911이나 교내의 안전/치안 담당자에게 전화하도록 한다.

표 II-5 교수나 직원들이 학생에게 대처할 수 있는 일들

구분	내용
이야기하기 (Talk)	교원과 학생 모두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무엇인가에 몰두에 있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없이 학생과 이야기한다.
청취하기(LISTEN)	세심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용어로 관찰된 학생의 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최근에 결석한 것을 알고 됐고 염려가 된다'
의사소통하기 (COMMUNICATE)	학생이 교수에게 이야기한 것의 핵심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해를 깊게 하는 것으로 내용과 느낌을 모두 포함해서 시도한다. 예를 들면, '너는 이렇게 큰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않고 뒤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같구나'
희망주기 (GIVE HOPE)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확신시켜 준다. 학생이 취할 행동의 옵션을 찾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유지하기(MAINTAIN)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경계(boundaries)와 학생의 기대를 유지한다.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교수 능력의 한계를 학생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의뢰하기(REFER)	교수가 최선을 다해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클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다.

SDCS는 교수들이나 학교직원에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코너(FAQ)를 통해 상담과 관련한 비밀보장, 상담 첫 회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 상담에 따른 낙인, 약품처방 등 학생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치료에 관련된 지침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3) 온타리오 예술·디자인 대학(Ontario College of Art and Design University)¹⁵⁾

온타리오 예술·디자인 대학은(이하 OCAD)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일환으로 ‘비평 준비’ (Preparing for Critique) 와 같이 학생들의 대처능력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해나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들을 돕는 개인상담 서비스와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학생 멘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① 대처기술 : 비평(critique)¹⁶⁾ 준비를 위한 간단 지침

예술대학에서 흔히 수업 중 진행되는 비평에 대해 학생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비평준비과정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시계열적으로 자문하면서 스스로 비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비평시간을 잘 대비하도록 과제를 만족스럽게 완성하게 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준비시킴으로서 비평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들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II-6 비평(critique) 준비를 위한 자문내용

구분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과제	- 과제를 완성했는가?
	- 본인이 완성한 과제에 상당히 만족하는가?
	-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느끼는가?
	- 나에게 요구된 사항을 완성했는가?
	- 비평시간 전에 교수나 급우들과의 논의가 필요한가?
비평 몇일전	- 작업을 다 마쳤는가?
	- 마지막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가?
	- 내가 신뢰하는 친구/파트너/룸메이트 아니면 욕실 거울 앞에서라도 리허설을 해 보았는가?
비평 전날	- 밤에 잘 쉬기 위해서 작업을 충분히 일찍 마쳤는가?
	- 학교에 가지고 가야 할 물건들을 잘 챙기고 정리했는가?
	- 만약 비평시간이 걱정된다면, 친한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15) <http://www.ocadu.ca/students/health-wellness.htm>

16) 예술대학생들의 주 수업과정중 하나가 자신의 작품이나 결과물에 대해 수업 중에 교수와 급우로부터 비평을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인터뷰와 상담실의 전문가 면담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비평 당일 아침	- 아침식사를 잘 했는가? - 잘 쉬었는가?
	- 여유를 갖고 잠시 쉬거나,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가? - 내가 성공적으로 잘 해낼 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비평 직전	-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바른 호흡을 하고 있는가?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
	-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아주 멋지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가? 내 주장에서 강조해야 할 2~3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냈는가?
	-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거야’ 와 같은 생각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 내 급우들과 교수 모두 오늘 내가 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비평시간 중	- 처음에는 불안하고, 떨리고, 땀나고, 어지럽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 계속 말하면서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 호흡하고, 천천히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미소 짓고 있는가? 유머는 도움이 될 수 있다.
	- 급우와 교수가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비평 후	- 다 끝난 것을 스스로 축하했는가?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한 것에 대해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는가? 이 비평시간 중에 잘한 세 가지, 그리고 다음번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되새겨 볼 수 있는가?
	- 나를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가? 쉴 자격이 있다.

② 개인상담 : 위기에 처한 학생 돕기¹⁷⁾

OCAD의 ‘보건·건강센터(Health & Wellness Centre)’의 개인상담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단기개인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8번의 상담회기 동안 기분이 나아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느끼지만, 상담가들은 개인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대인관계 또는 가족문제, 성문제/성적성향, 사별(bereavement)에 따른 비탄과 상실감, 자아존중감,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대한 문제나 염려할 일이 있을 경우 개인상담 서비스에서 원조할 수 있다. 개인상담을 제공하는 상담가들은 미술과 디자인, 학업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과 걱정거리들에 대해 알고 있는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상담가들은 위기개입서비스도 제공하는데, 학생들이 두렵고, 혼란스럽거나, 우울하고

17) <http://www.ocadu.ca/students/health-wellness/counselling.htm>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 이에 대해 긴급 조치(interm support)를 취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지침¹⁸⁾

이 ‘보건·건강센터’에서는 먼저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지침을 통해 교수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알고 있거나,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위기에 처하거나 중요한 인생사건을 교수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스트레스, 자기회귀감, 대인관계 문제, 재정적 문제 및 학업스트레스와 혼합된 일에 대한 의무 등에 대한 문제들이다. 가족의 죽음, 질병이나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의 회복과정은 학생들의 평소의 대처방식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즉시 위기상황을 만들 수 있다.

교수가 강의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한 학생을 발견하고, 그 학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학생의 평소행동과 다른 변화를 관찰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교실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참여 위축
- 학업에서의 문제 : 과제를 내지 않고 늦게 제출하거나,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결시(缺試)
- 교실에서의 공격적인, 분열성 행동(disruptive behavior, 分裂性 行動)
- 자신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기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에너지수준이나 집중에 있어 눈에 띄만한 변화 : 무기력,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수업시간중 수면, 활동과잉, 충동을 통제할 능력 상실, 과도하게 말하거나, 웃거나 부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동
-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향: 개인위생이나 복장에서의 변화
- 울거나, 교실에서 나가거나 공격적인 감정폭발을 보이는 경우
- 절망감이나 무력감을 감정, 언어, 또는 작품을 통해 표현

가. 위기상황

- 자해 : 만일 학생이 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수나 학교직원은 즉시 전문의료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상황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의뢰는 반드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해당발언의 심각성이나 치사가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교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보

18) http://www.ocadu.ca/Assets/image_media/Health-Wellness/Guidelines-for+Students+in+Crisis.pdf

건·건강센터’ 나 위기서비스(근무시간이후)로 즉각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 :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실을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학교안전담당부서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 섭식이상(Disordered Eating) : 학생이 만일 과도한 다이어트, 폭식과 식후 구토유도 등에 대해 걱정한다면, 이는 ‘보건·건강센터’ 로 학생을 의뢰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신체적, 심리적 관점에서 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치료 요청이 지체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 마약과 알코올 남용 : 만약 학생이 캠퍼스에서 알코올이나 재미로 마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건·건강센터’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해야 한다. 마약과 알코올 남용은 학업성취를 방해하거나 종종 심리적인 문제의 지표가 된다. 약물 과다복용이나 마약반응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나. 개입방법

- 경청(Listen) :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적인 것으로 학생에게 확신시키고, 교수가 주의 깊게 경청하는 동안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판단이나 조언 없이 경청한다.
- 인정(Acknowledge) : 학생에게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의 걱정거리를 인정하고, 교수가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다시 말해준다(예, “너는 현재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다”)
- 걱정 표현(Express Concern) : 교수가 걱정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예, “나는 네가 교실에서 울었고, 여러 번 교실을 떠나서 걱정했다”)
- 희망 제안(Offer Hope) : 학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안심시킨다. 학교 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가 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도움받을 수 있는 선택권과 자원이 있다.
- 기억(Remember) : 교수의 역할은 학생이 ‘보건·건강센터’ 또는 가족주치의를 통한 전문적인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 ‘보건·건강센터’로 위탁하기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은 학생이 용기 있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만약 팔이 부러진다면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을 것이다”와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과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 학생이 받는 서비스는 완전히 비밀보장이 되며 어떠한 교수나 직원도 학생의 건강파일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도 학생에게 알려준다. 또한 학생에게 ‘보건·건강센터’의 정보 광고지나 상담브로셔를 제공해주고, 해당사이트 정보를 보여준다. 학생이 동의할 경우 ‘보건·건강센터’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도록 제안한다.

라. 방어적이거나 도움받기를 꺼리는 학생을 돕는 방법

- 교수가 걱정하고 있음을 학생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학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장려한다. 도움을 청하려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와 책임, 성숙함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 학생이 이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학생과 만날 것을 제의한다.
-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학생이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학생의 권리이고 책임이다. 학생이 전문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상담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학생의 권리이다.

※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

- 학생이 교수의 연구실에 있는 동안 ‘보건·건강센터’에 전화하도록 제의할 수 있다. 학생이 이에 동의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연결단계가 된다. 직접 센터에 전화해서 “지금 ○○학생과 같이 있는데 ○○를 대신해서 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거나, 학생이 ‘보건·건강센터’에 전화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이 되는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안할 수 있다.
- 위의 단계들이 실패했고 계속 학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보건·건강센터’ 지원에게 자문을 받는다. ‘보건·건강센터’ 임상가는 교수의 걱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다루는 전략을 알려줄 수 있다.

마. 경계선 유지

교수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건전한 한계를 유지해야 한다.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을 지지할 때, 관여(involverment), 기술, 그리고 관여의 적절성에서 교수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에게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알고 있고, 나는 전문적인 도움을 찾으려는 너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와 같이 말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유지한다.

바. 후속 만남 계획 마련

학생에게 후속조치를 위해 다시 만날 일정을 정하자고 제의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격려와 지지 의사를 전한다. 세부적인 일들을 탐색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치료방법이나 처방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다.

사. 문서화

학생의 문제와 걱정거리와 관련해서 실시한 학생과의 초기 및 후속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화함으로써 미래에 유사한 상황에서 이 문서화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이름, 학번, 만난 날짜, 학생의 문제와 학생에 대한 교수의 걱정거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외에 주변 병원과 핫라인 전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면서, 교수들이 문제 있는 학생들을 적절히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멘토프로그램

OCAD에서의 학생멘토프로그램은 공식적인 학생이행프로그램(student transition program)이다. 대학생활 첫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멘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개인성장과 학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대학생활로 이행중인 신입생 지원
- 사회적 활동 및 학업에서 신입생과 교수, 동년배사이의 공동체 참여와 개입 격려
- 인종, 피부색, 출생지, 나이, 성별, 성적성향, 능력, 종교, 또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다양한 환경을 인정하고 지지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들의 리더십기술, 의사소통기술, 시간관리기술, 자기확신과 대인관계 기술의 강화, 팀워크와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유익하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신입생은 언제나 참여하도록 격려된다. 또래 멘토는 첫해 학교생활에서 직면한 도전들을 기억하고 있고 돕기를 원하는 상급생들이다. 그들은 멘티의 대학생활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또래,

교수, 직원들과 학교공동체의 참여와 개입을 격려하며, 일대일 격려와 지지·지도를 제공하며, 학교학사과정, 학생지원서비스와 과외활동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다. OCAD의 모든 신입생(편입생 포함)은 자원봉사자인 토래 멘토가 배정될 수 있으며, 첫해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아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2학년 학생들도 멘티가 될 수 있다.

멘토/멘티 배정방법과 기준을 살펴보면, 상급학년 학생토래멘토 자원봉사자는 작은 규모의 신입생 집단과 짝을 이룬다. 프로그램 신청서에 학생 멘티가 기재한 기준에 따라 멘토/멘티가 배정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제시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학부, 성별, 연령이다. 토래멘토에게 배정되는 학생멘티의 수는 얼마나 많은 멘토와 멘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렸지만 일반적으로 3:1 비율이다. 학생멘티가 멘토에게 배정되면, 멘토가 멘티의 연락처를 받게 되고 3일 이내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토래 멘티는 질문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멘토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멘토는 친절하고 시의적절한 응대를 해야한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자주 의사소통하되, 의사소통 일정을 준수하고, 부수적으로 “공식적인 프로그램 의사소통” 보고를 매달 첫 3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멘토프로그램 핸드북은 토래 멘토의 역할을 돕는다. 하루 동안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4월말에 진행되며, 시간이 되는 토래 멘토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예정된 등록지원기간(Registration Assistance Days)동안 계획된 주요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기간 동안 멘토들은 신입생을 처음 접촉할 수 있으며, 그들을 환영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공동체를 만들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전체적인 학생들의 경험을 강화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좋은 멘토링 관계 형성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토래 멘토는 “성공적인 멘토링 관계 형성”과 같은 도움이 되는 인쇄물을 받는다. 멘토링 관계는 6월에 시작되어 11월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서 친구로 남는 것은 공동체 형성의 일부로 여겨지며,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만일 멘토링관계와 관련된 염려나 문의가 있는 경우 모든 학생 멘토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캠퍼스 생활 조정자(Campus Life Coordinator)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4) 런던예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AL)¹⁹⁾

미술과 디자인을 주요 전공분야로 하고 있는 런던예술대학(이하 UAL)에서는 학생서비스(Student Services)에서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건강, 정신건강, 상담, 종교와 관련된 서비스와 그 외 다양한 집단활동 및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서비스에서는 신입생들이 집을 떠난 것에 대한 향수병, 학업 및 재정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학교의 학생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UAL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학생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웹사이트를 이용한 동영상²⁰⁾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요원 및 직원 등 학교관계자에게 정신질환과 이를 위한 개입에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함으로써 문제 있는 학생의 발견 및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① 정신건강서비스²¹⁾

먼저 UAL홈페이지에서는 정신건강문제를 개인이 일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심리적 장애이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 정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유발된 단기간 우울증이나 불안감에서부터 장기적인 정신의학적 질병을 포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개인이 사회에서 잘 기능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 정신건강에 대한 간단한 지침

정신건강에서 가장 보편적인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불안장애,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섭식장애 등에 대해 질병의 주요 특징과 증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스스로, 그리고 주변의 친구나 교수 등 학교관계자들로 하여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발견·원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www.arts.ac.uk

20) Video-mental health : <http://www.youtube.com/watch?v=GVbxc1RSkQY&feature=related>

Video-Counseling : <http://www.youtube.com/watch?v=vFwsyLdEs8Y>

21) <http://www.arts.ac.uk/student/student-services/healthwellbeing/mentalhealth/>

표 II-7 정신건강 관련 질환과 증상들

질병	특징과 증상들
불안(Anxiety)	불안은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이 너무 커져서 생활기능을 유의미하게 손상시킬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흔한 증상으로는 불안, 수면장애, 집중하기 어려움, 식욕상실/식욕과잉, 두통, 소화 장애, 두근거림과 같은 신체증상, 공황발작을 포함한다.
우울 (Depression)	우울은 정신건강문제에서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느끼고 때때로 완전히 절망적으로 느끼기도 한다. 흔한 증상으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저조하고 우울한 정서, 무감각하거나 공허감, 의기소침, 인생에 대한 흥미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족, 집중하기 어려움, 사회적 위축, 식욕부진/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음, 수면장애, 음주 및 담배와 타 약물 사용 증가, 죄책감, 자기무시, 불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 등을 포함한다.
조병 (Mania, 躁病)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있는 시기에, 함께 정서가 심하게 변화하면서 조울증(bipolar disorder)이나 조울병(manic depress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인 증세로는 분명한 이유 없이 들떠있거나, 말이 빠르고 사고가 정리되지 않으며, 수면부족(거의 수면을 취하지 않거나 일찍 기상)과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망상이나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인격이 분열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리적인 사건을 겪고 또 회복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다. 증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한다. 흔한 증상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확고한 신념에 집착하거나 문화적으로 맥락에 맞지 않고, 환청이나 편집증, 그리고 실제 없는 것을 보거나, 맛을 느끼거나, 냄새를 맡거나 느끼기도 한다. 사람, 사건, 사물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고와 행동을 통제한다고 믿기도 하며, 사고나 언어가 매우 혼란스럽고 감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정신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는 마약에 의한 것이며, 남자는 20대에, 여성은 30대에 첫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
섭식장애 (Eating Disorders)	학생들,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거식증(또는 신경성 무식욕증, Anorexia Nervosa)은 비만에 대한 강한 두려움에 따른 것으로 칼로리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며 엄격하게 운동을 한다. 옷을 여러겹 입음으로써 극도로 수척해진 몸을 위장하기도 한다. 다식증(또는 식욕 이상 항진증, Bulimia)은 통제할 수 없는 과다한 식사(폭식)를 하고 늘어난 체중을 통제하기 위해 완하제(緩下劑)를 남용하거나 구토를 스스로 유발하는 것이다. 종종 정상적인 체중으로 보이기도 한다. 강박적 식사장애(Compulsive eating)는 통제감 부족이나 이에 대한 괴로움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으나 꼭 사회적기능이나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공공측면에서 문제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다른 정신건강 관련 장애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의 경우 학생이 특정 사물에 대한 집착이나 특정행동을 빈번하게 반복할 수 있다. 공포증(광장공포증, 밀실공포증, 사회공포증 등), 특히 사회공포증은 학생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주게 되며 발표나, 구두시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폭음이나 약물의 오남용이 계속되면서 중독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나. 정신건강에 대한 조언 및 상담

정신건강고문(mental health adviser)과 상담가는 동일한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거나, 하고 있는 일의 유형에 따라 겹치기도 한다. 상담은 학생이 현재 겪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도울 수 있으며, 정신건강 지원은 심각성이 높은 장기적인 문제를 다룬다. 상담가는 치료와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의 이슈들을 탐색한다.

정신건강고문은 실제적인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고 무료 또는 저비용이면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전문가와 협업하기도 하고 학생을 대신해서 학생을 변호할 수 있다(예를 들면, 지역사회 정신건강팀, 보건전문가, 교수, 학생지도교수/상담가 등). 특히 학생은 정신건강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정신건강고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고문이나 상담가 중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알지 못해도 일단 연락을 하면 최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현재 절망감을 느낄 때

UAL은 자해나 자살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 있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안내와 도움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 및 상담관련 서비스의 근무시간 및 근무외 시간 연락처(학교 및 지역의 건강관련 기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해나 자살시도와 같은 긴급상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 학생이 자해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친구에 대한 걱정으로 홈페이지의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수 있다. 자살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초기에 도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위기가 지나가면 자살의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만약 막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이미 했다면 바로 긴급전화를 하거나 지역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한다.
- 지금 자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은 시도하지 않고 있는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있을 사람을 찾아라. 만약 불가능하다면 학교의 학생서비스와 연락하고, 건강조언자와 상담서비스에 ‘긴급’ 약속을 요청할 수 있다.
- 자살을 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TV나 DVD를 시청하거나, 책을 읽거나 방을 정돈하고 페이퍼 파일 등을 정리하는 등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또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우울증웹사이트²²⁾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줄 수 있다.

라. 친구가 염려될 때

학생들은 친구나 동료학생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비공식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친구나 동료학생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들의 문제를 당신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
- 친구의 외모에 큰 변화가 있었는가(체중감소/증가, 개인위생문제 등)
- 친구가 술을 이전보다 더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것 같은가?
- 그들에게서 다른 냄새가 나는가?(술이나 대마초 냄새가 자주 나는가?)
- 최근에 기분이 많이 바뀌었는가?(비참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가?)
- 다른 친구, 친척 또는 지도교수가 그 친구에 대해서 걱정을 한 적이 있는가?
- 행동이나, 학교과제나 사회성 등에 있어 최근에 변화가 있었는가?(예, 너무 많은 일을 한다거나, 평소처럼 많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강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과제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때)
- 얼마나 오래 당신친구가 이렇게 행동했는가?

위와 같은 이유로 친구가 염려가 될 때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황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일이 전혀 없는 체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오랜 기간 지속시킬 수 있다.
- 당신이 친구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 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친구가 그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원치 않는다면 친구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 경청할 준비를 하라. 특정 상황은 그저 동정적인 경청만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과 다른 일들을 고려하라
- 당신의 친구가 도움을 찾도록 격려하라
- 만일 당신의 친구가 도움을 거절한 상태에서, 당신은 계속 걱정이 된다면, 교수진이나 지도교수, 또는 지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만약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도움을 청할 때 친구의 실명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22) <http://www.studentdepression.org/>

-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당신 친구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 왜 타인에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하라. 당신 친구의 동의 없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는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정신건강이 악화된 경우이다.
- 친구를 돕는 일은 극히 정서적이고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고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도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친구를 돕는데 필요한 당신의 염려와 가능한 지원들은 학생서비스의 건강고문과 논의할 수 있다.

또한 UAL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나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신적 질병에 따른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주간/야간 전화상담 서비스와 일반적인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면 <표 II-8>과 <표 II-9>와 같다.

표 II-8 정신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웹사이트 정보

질병명	구분	웹사이트주소	내용
불안장애	공황발작	http://www.panic-attacks.co.uk/	공황발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온라인이나 이메일프로그램 제공
	공황이 없는 경우	http://www.nopanic.org.uk/	공황발작, 공포증, 강박증, 불안장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무료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우울증	우울증 연합	http://www.depressionalliance.org/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지와 정보 제공
	학생 우울증 사이트	http://www.studentdepression.org/	학생들에게 우울증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계절성 정서장애 협회	http://www.sada.org.uk/	계절성 정서장애의 증상·치료관련 정보 제공
조울증	조울병지지도임	http://www.mdf.org.uk/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과 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
정신분열증	다시 생각하다	http://www.rethink.org/	심각한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섭식장애	섭식장애 협회	http://www.b-eat.co.uk/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남녀에게 정보 제공
음주와 약물 지원서비스 (Alcohol and Drug Support)	FRANK (전 국가약물 전화상담서비스)	http://www.talktofrank.com/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와 마약 및 알코올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조언 제공. 다른 전화상담서비스나 지역의 약물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

Services)	중독	http://www.addiction.org.uk/	알코올과 약물 오남용과 관련해서 지원
	익명 알코올중독자	http://www.alcoholics-anonymous.org.uk/	알코올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전국적인 집단활동
	드링크라인	-	알코올 오·남용에 대한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는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

표 II-9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화상담서비스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명	웹사이트주소	내용
전화상담 서비스	착한사마리아인	http://www.samaritans.org.uk/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방문자에게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비스 제공
	심야 전화상담서비스	http://www.nightline.org.uk/	심야시간에 걱정하는 일이 있거나 다른 학생에게 비밀이야기를 하길 원할 경우 매일 밤 오후 6시부터 오전8시까지 서비스 이용가능
	정신적 건강위한 전화상담서비스	http://www.sane.org.uk/	정신건강문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위기 시 보호 및 정서적 지원 제공
일반적인 정신건강 정보	마음	http://www.mind.org.uk/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보와 조언 제공. "이해(Understanding)"리플렛은 일련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더불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목록을 제공. "방법(How to)"시리즈의 리플렛은 자기주장, 공황발작을 다루는 방법, 학생생활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음.
	BBC정신건강섹션	www.bbc.co.uk/health/mental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운영하는 건강정보 사이트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정보 및 대처기술,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 정보 등을 담고 있으며,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음.
	정신건강재단	http://www.mentalhealth.org.uk/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 치료와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 최근 연구, 출판물, 컨퍼런스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기타	강박장애 액션	http://www.ocdaction.org.uk/	강박장애(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로 영향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및 치료법, 지지 제공
	국가자해네트워크	http://www.nshn.co.uk/	자해를 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자해와 관련된 정보, 연락처, 워크숍 등도 제공
	사별에 대한 돌봄	http://www.cruisebereavementcare.org.uk/	사별(Bereavement)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담 제공
	Relate	http://www.relate.org.uk/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유용하고 정보가 많은 자조(self-help) 정보지 등을 통해 원조
	성적성향 전화상담	http://www.llgs.org.uk/	성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 지지와 조언을 위한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② 상담서비스²³⁾

UAL의 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활용하여 학교내외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일반적인 문제들과 상담예약하는 방법 등 UAL 상담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의 기능과 훈련받은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자조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UAL서비스는 모든 학생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정해진 상담실이나 편안하고 개인적인 환경에서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도 제공하며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리플렛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업과 관계없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상담가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상담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는 학업과 관련해서는 글쓰기나 발표, 비평(‘crits’ -critique)에 대한 어려움, 동기부족, 미루는 버릇 등의 문제 등이 있다. 개인적/발달적/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은 동성친구·이성친구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향수병, 소외감, 불안, 스트레스, 우울, 공포, 성적문제(sexual issues), 정신적 외상, 자아정체감 문제, 딜레마와 어려운 결정을 다루는 문제, 건강염려, 섭식장애/음식에 대한 불안, 음주 및 마약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한다. 문화/대학생활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도 다룬다. 상담은 위기나 긴급한 상황들도 다루며, 장기적 사안들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자원을 동원하여 위탁할 수도 있다. 상담가와 더불어 정신건강고문, 건강고문, 교목도 문제에 당면한 학생을 도울 수 있다. 상담서비스에서는 학생을 돕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자조를 위한 정보

자조를 위한 정보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분노관리, 예술전공학생으로 살아가기, 사별(Bereavement), 비평, 향수병, 발표를 편하게 하는 방법, 공황발작, 일을 미루는 습관, 자해, 수면장애, 사회적 자신감등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증상, 대처방법이나 조언, 도움이 되는 곳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링크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정서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유라면 무엇이든 학생들은

23) <http://www.arts.ac.uk/student/studentservices/healthwellbeing/counselling/>

상담가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상담가를 만나러 오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문제 중, 특히 예술전공학생들이라는 특성에 맞춰진 주제로서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는 비평(Crits)에 대한 내용과 발표 및 비평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자신감(Social Confidence)에 제시된 내용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평/ 작업실 실습 세미나(상호 주고받는 피드백 - 학생들을 위한 지침)

도움이 되는 비평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의 작품에 대한 비평이 공격적이지 않고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전부 노출되는 것 같은 기분을 갖게 하므로,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평시간이 최대한으로 유익한 학습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평이 학습기회이며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게 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데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언과 생각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피드백주기

-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은 피드백은 충동적이 될 수 있다. 첫 인상을 표현할 때도 당신이 무엇을 말하기 원하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 작품에 대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좋은 것에 대해 말한다.
- 작가가 아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 절대 작가에게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 피드백은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일반적인 의견 제시는 피한다.
- 황금률(The golden rule, 피드백 받고 싶은 대로 본인도 그렇게 피드백하라) : 비평을 할 때, 입장을 바꿔서(마치 당신이 비평을 받는 것처럼) 당신이 경청하고자 준비된 또는 경청하기에 유익하다고 생각될만한 것만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노력을 항상 존중한다.
- 피드백을 받는 예술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 피드백은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 당신이 주고 있는 피드백을 인지한다 :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나를 주어로 시작해서 말한다.
- 진실되게 한다 : 솔직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유용한 일이다. 영리하고 인상적으로 들리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만을 이야기한다.
- 경쟁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가 당신의 작품을 더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 불편한 상황을 억지로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 만약 솔직하고 사려깊게 비평이 이루어졌다면 강도가 높은 비평도 매우 유용하다.

— 피드백받기

- 오픈되어야 한다 : 피드백을 환영하고 시련이 아닌 기회로서 보도록 하며, 이야기되는 것들을 기꺼이 들으려고 해야 한다. 당신의 교수와 동료의 관점을 듣는 것은 당신의 작품이 어떻게 보여질 지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 방어적이지어서는 안된다 : 경청하고,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피드백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떤 피드백은 매우 유용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당신이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특권이다. 당신의 작품이고 표현이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보지는 않는다.
- 적극 참여한다 : 화자와 상호작용하고,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을 요청한다.
- 피드백 받은 것에 대해 피드백 하기 : 누군가가 당신이나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무례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 말할 권리가 있다. 또한 듣기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사회적 자신감

런던예술대학 학생으로서 부끄럽게 느끼거나 초조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수업을 통해 사람을 알아가거나, 교수님과 이야기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관련업계 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클럽이나 파티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매우 처신하기 어려우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사회적인 상황에서 당신이 겪을 수 있는 경험

- 사람이 가득찬 방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함.
- 방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심장박동이 빨라짐.
-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면 극단적으로 불편함을 느낌.
- 용기를 얻기 위해 음주가 필요함.
- 몸이 떨리며, 안면홍조를 띠م.
- 남의 시선을 의식함.
-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낌.
-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름.
-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낌.

－ 자신감 개선방법

- 방의 구석으로 숨지 말고, 앞쪽의 중앙에 있다.
- 누군가 당신을 소개하길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다.
- 자세를 똑바로 하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심호흡을 한다.
- 미소 짓는다.
-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상과 눈을 마주친다.
- 바디 랭귀지 : (팔짱을 끼지 말고) 느긋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분명하게 말하고 중얼거리지 않는다.
-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들리도록 한다.
- 경청 - 눈 마주침을 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음악을 좋아합니까’ 와 같은 질문은 단순한 ‘예/아니오’ 의 응답만 가져온다.
- 공유하기 - 개인적인 사항, 아이디어, 사고, 감정, 그리고 확신을 상호 교환하는 우정의 시작으로서 자신의 것들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 칭찬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 자신 있게 행동하면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 도움이 되는 장소와 정보

- UAL 상담서비스
- 왕립정신의학회

나. 자조를 위한 워크숍과 온라인 정보

UAL에서는 학생들이나 학교관계자들이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적인 상담뿐 아니라 집단 활동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자조(self-help) 정보, 수많은 온라인 자원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와 웹사이트 링크들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워크숍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의 ‘건강과 복지’ 부서에서는 매 학기마다 자신감, 자존감, 우울과 불안등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한 수많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며, 학교에서 최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2년도 하반기에 열리는 워크숍을 예로 들면 아래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자조를 위한 워크숍 예시

워크숍 주제	내용
발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줌. 이 워크숍은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고, 발표 전과 발표 도중의 긴장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다룸. 참석자들은 상호간 발표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으며, 서로에게 발표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음.
걱정없이 자기패배적 생각을 극복하는 법	불안이 어떻게 작용하며,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음.
예술전공 학생 되기	UAL에서의 교수-학습 스타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학생에게 어떤 의미인지 탐색하고, 어떻게 UAL의 학생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음.
겨울의 우울함을 깨기 위한 10가지 조언	겨울 내내 저조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조언 제공
자신감과 자존감 세우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지 방법 찾기
자신돌보기-학교생활에서의 감정기록	정서적 회복력(resilience)을 개발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언 제공
당신을 위한 비평시간만들기	비평시간을 어떻게 학생 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걱정거리가 방해하지 않도록 함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조를 위한 온라인 정보와 웹사이트 링크들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표 II-II 온라인 자조를 위한 자원

서비스 (제공기관)명	웹사이트주소	내용
Living Life to The Full	http://www.lltff.com/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 제공. 문제 해결 모듈(module)과 불안 모듈이 있음.
Students Against Depression	http://www.studentdepression.org/	우울, 기분 저하, 자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음. 관련 이야기, 조언, 자조 전략들을 제공함.
Mood GYM	https://moodgym.anu.edu.au/welcome	우울을 예방하고 다루기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인지행동 치료 등) 제공
E-Couch	https://ecouch.anu.edu.au/welcome	사회불안, 범불안 장애, 우울에 대처하기 위한 자조 프로그램 제공
BlueBoard	http://blueboard.anu.edu.au/	우울, 양극성장애, 불안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지원 그룹. 장애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성공적인 대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기회, 희망,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함.
BluePages	http://www.bluepages.anu.edu.au/	우울 및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Samaritans	http://www.samaritans.org/	고통이나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e-mail, 면대면으로 지원해줌. 비밀이 보장되는 24시간 서비스 제공
HOPELineUK 0800 068 4141	http://www.papyrus-uk.org/hln.html	청소년들이 자살, 우울, 정서적 어려움을 다룰 수 있도록 비밀 보장이 되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
Mind	http://www.mind.org.uk/	다양한 정신 건강 이슈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공
beat	http://www.b-eat.co.uk/	식이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 및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FAQ를 통해 상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절차, 비밀보장(교수 등 학교관계자와 기록과 관련해서)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상담기록을 관리하는지, 또 얼마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유자격 상담팀으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 외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와 웹사이트 링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고 있다.

표 II-12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기관들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명	웹사이트주소	내용
정신건강 일반	Changing Minds campaign	http://www.rcpsych.ac.uk/campaigns.aspx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낙인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Student Counselling in UK Universities	http://www.studentcounselling.co.uk/links-source.html	학생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웹사이트)을 정리해 놓음.
알코올 및 약물	Alcoholics Anonymous	http://www.aa-uk.org.uk/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
	Al-Anon	http://www.al-anonuk.org.uk/	알코올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
	Narcotics Anonymous	http://www.ukna.org/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
불안 (Anxiety)	Phobics Society	http://www.anxietyuk.org.uk/	불안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그들을 지지해줌으로써 불안장애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함.
	No Panic	http://www.nopanic.org.uk/	공황발작, 공포증, 강박장애를 비롯한 불안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친구되기 (Befriending)	Befrienders International	http://www.befrienders.org/	외로움이나 절망을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중 언어 웹사이트
사별 (Bereavement)	London Bereavement Association	http://www.bereavement.org.uk/	사별과 관련된 서비스 정보 제공
	Cruse	http://www.crusebereavementcare.org.uk/	사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전화상담 서비스 및 면대면으로 실질적 조언 제공

(5) 시카고 예술학교(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²⁴⁾

미국의 시카고 예술학교의 상담서비스는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는 상담과 정신치료, 상담자문, 그리고 캠퍼스의 학생들을 원조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세가지 필수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는 전일제로 박사수준의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와 심리학 박사후과정 펠로우, 시간제 정신치료사들에 의해 제공된다. SAIC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담과 정신치료²⁵⁾

현재 등록된 학위과정의 SAIC 학생들은 상담과 정신치료를 무료로 16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상담사무실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약속을 잡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기면접을 위해 수일내에 심리학자를 만나게 된다. 위기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가능한 빨리, 즉시 만나게 된다.

SAIC학생들이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들은, 불안/두려움/걱정/신경과민, 학업/학교공부/성적, 우울증/자아존중감/자신감, 재정문제, 정신집중, 미래의 삶/대학졸업후의 불확실성, 미루는 버릇/동기 부여받기, 스트레스 관리, 진로와 전공 결정 등이다. 상담은 비밀보장되며, 상담가와 의사소통한 내용은 내담자의 동의서 없이는 상담서비스 외의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거나, 심각한 위해로부터 내담자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서비스평가와 연구를 위해 상담서비스의 기록된 정보는 사용될 수 있으나,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적인 정보들은 노출되지 않는다.

② 정신건강 온라인 검사 프로그램²⁶⁾

SAIC의 상담서비스는 학생들의 우울증, 조울증, 불안과 알코올문제들을 위한 온라인 검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검사는 학교의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모든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 <http://www.saic.edu/index.html>

25) <http://www.saic.edu/lifeatsaic/wellnesscenter/counselingservices/>

26) <http://www.mentalhealthscreening.org/screening/?keyword=SAIC>

③ 상담자문서서비스²⁷⁾

상담서비스의 심리학자들은 교수, 학교직원,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매년 상담서비스는 개인적인 자문과 계속진행중인 상담관계를 통해서 학교공동체에 활발한 자문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상담자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서적/심리적/정신건강과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질병
- 다양한 (정신·심리적) 장애에 대처하기(조울증, 약물남용과 약물의존 등)
- 시카고에서의 첫 학기, 학교생활, 졸업과 같은 삶의 전환(transition)에 대한 적응
- 타인의 고통스러운 행동에 대한 대응
- 외국학생, 성적성향·성전환학생들이 당면하는 특별한 도전과 스트레스와 같은 특정 학생집단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④ 정신건강위기 대처²⁸⁾

정신건강위기는 만일 학생이 통제가 되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바로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될 경우(예, 학생이 위협하거나 자살, 살인 등 자신과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응급전화나 비상버튼을 통해 신속히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학교보안담당자는 학생을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갈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학교의 상담서비스 직원과 연락할 수 있다.

⑤ 캠퍼스의 학생들을 원조하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ming)²⁹⁾

상담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 공동체와 상담서비스 직원들의 공통된 관심에서 시작되며, 학교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데 그 범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예방과 심리교육(psychoeducation) : 심리적인 주제, 정신질환 예방, 정신적 괴로움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국가적인 우울증 검사의 날(National Depression Screening Day), 섭식장애 검사일(National Eating Disorders Screening Day),

27) <http://www.saic.edu/lifeatsaic/wellnesscenter/counselingservices/consultationandoutreachprograms/>

28) <http://www.saic.edu/lifeatsaic/wellnesscenter/counselingservices/consultationandoutreachprograms/>

29) http://www.saic.edu/life/services/counseling/outreach_programs/index.html

그리고 알코올 검사(Alcohol Screening)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상과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와 우울증”, “알코올 사용”, “수면개선”과 같은 워크숍을 제공하기도 한다.

나. 개인적인 발전 :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이다. 예를 들면,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인종적 정체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둔 영화 및 토론 시리즈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담서비스에서는 “명상과 예술과정”, “적극적 의사소통”, “창조적인 스트레스 관리”, “예술가를 위한 유도된 이미지(guided imagery)와 음악”, “장거리 (파트너)관계”, “건강한 관계”와 같은 워크숍을 제공한다.

다. 리더십 개발 : SAIC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와 예술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초점을 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다. 학교기숙사 사감 훈련 시 상담서비스의 역할과 “예술속의 여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토론과 “여성, 건강, 그리고 예술” 원탁회의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라. 공동체 구축 :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돕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다.

⑥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교수와 직원이 돕는 방법³⁰⁾

상담서비스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교수나 학교직원이 도울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하고 이 학생에게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지한 학교관계자를 위해 개발된 것이다. 학생과 자주 접촉하는 교수와 학교직원은 문제가 있는 학생을 찾아내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이러한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에 의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상담서비스의 의뢰지침(Reference Guide)을 간단히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목적, 예약을 포함한 상담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자격, 비용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개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Distressed students)과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Distressing student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있는 학생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눈물을

30) http://www.saic.edu/media/saic/pdfs/lifesaic/wellnesscenter/Emotionally_Distressed_Students.pdf

흘린다거나, 분노에 찬 의견을 제시하거나,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한편 괴로움을 주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교수, 급우, 행정직원이나 룸메이트)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주는데, 예를 들면 학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폭발한다거나, 절도,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 등이 포함된다.

교수와 학교직원은 학생의 문제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학과장이나 학생담당부서(Office of Student Affairs)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가장 복잡한 상황은 본인이 고통을 겪으면서 타인을 괴롭게 하는 학생의 경우인데, 정서적 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학생은 학과나 학생담당부서가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학과나 학생담당부서에서는 상담서비스에 자문을 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외에 개입시기와 방법, 속마음을 털어놓은 학생에 대처하는 방법,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지만 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언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입시기와 방법

교수나 학교직원들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민거리를 토로할 수 도 있고, 다른 학생들이 급우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 또는 학생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교수나 직원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다.

상황의 특성에 따라 교수는 학생에 대한 접근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은 교수의 성격과 개입에 대한 느낌뿐만 아니라, 교수를 걱정시키고 있는 학생의 행동, 학생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에 대한 접근방법에 달려있다. 만약 학생이 자신의 걱정거리를 교수에게 개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도움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일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걱정이나 문제를 교수와 이야기하는 것에 개방되어 있다면, 교수가 학생의 문제를 알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 교수가 듣기 원한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예/아니오의 단답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는 개방형질문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이 교수의 노력을 거절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사생활을)침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의 관심과 염려를 고맙게 느끼며, 교수와 학생의 접촉은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만일 특정 학생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상담서비스에 연락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나. 속마음을 털어놓은 학생에 대처하는 방법

학생이 교수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노출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청한다.
- 학생이 표현하는 감정에 공감한다. 학생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그 관점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교수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진실되게 지지적(supportive)인 태도를 취한다.
- 교수는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고, 예를 들어, 교수에게 편안하게 어울리는 방식 이상으로 학생의 삶에 더 관여하지 않는다.
- 교수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거나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이 보일 경우, 교수는 학생에게 상담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비밀보장을 전제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만일 학생을 다루는데 있어 더 많은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다면 상담서비스에 연락해서 상담가로부터 자문을 요청한다. 자문은 전화상으로나 약속후 대면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지만 상담을 원하지 않을 때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으로부터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한 학생이지만 당사자가 상담받으러 가는 것을 꺼릴 때, 교수는 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어떤 느낌인지 일단 한번의 상담을 받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상담실 방문은 엄격하게 비밀보장이 유지된다.
- 상담약속을 잡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상담실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이때 원한다면 이름대신에 이름의 약자를 이야기 할 수 있다.
-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상담서비스로부터 자주 도움을 받는다.
- 상담실에 가는 것을 심각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상담실 직원은 만약 학생이 학교외부에서 치료받기 원한다면 지역사회의 정신치료의사나 해당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이 'No' 라고 말한 권리를 수용하기. 상담서비스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달려있다. 만일 괴로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단호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수는 학생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학생에 대해서 매우 염려가 된다면, 상담서비스 직원에게 자문을 구한다. 정신과의사는 그러한 학생에게 교수가 더욱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도울 때 자신의 책임감에 있어 한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교수가 학생에 대한 개입에 관여한다면, 교수가 시작했던 아니면 학생이 교수에게 다가갔던지 간에 학생의 정서적 건강에 교수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학생의 문제를 교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할 수 있거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개입은 교수나 직원의 상당한 수준의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거나 매우 지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처하는 것은 그러한 학생과 함께 하고 있는 교수나 직원의 복잡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의 일에 개입할 때 스스로를 위해 동료, 파트너, 친구, 상담서비스 직원으로부터의 자문을 통한 지지(support)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위기에 처한 학생. 만일 학생이 단순히 정서적인 고통이나 곤경에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이 폭력적이고, 일촉즉발의 자살이나 살해위험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개입이 필요하다. 학교의 보안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학생이나 타인의 신체적인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담서비스에 연락해서 학생의 응급상황을 이야기하고, 학교의 정신치료사에게 즉각적인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들 정신치료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바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이용 가능한 시간에 학생이 서비스를 받으러 가도록 할 수 있다(학생의 안전을 확신하는 경우에). 만약 학생이 학교기숙사에 거주한다면, 기숙사담당자에게 조언과 지원을 위해 연락해야 한다. 아니면, 학생을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학생이 스스로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거나 그들 스스로 충분히 위험을 피할 수 없을 때는, 학생과장(The dean of student affairs)과 학교보안담당자는 이를 지원해야 하며, 응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발견한다면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 3 장

면담조사

1. 면담조사 개요
2. 면담조사 분석

제 3 장

면담조사³¹⁾

1. 면담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예중 학생, 교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예중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들과 학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예중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둘째, 한예중 구성원들은 한예중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면담참가자 선정은 연구진이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한예중 학생심리상담소에서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예술영역에 따라 정신건강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작업방식이나 학과별 풍토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영역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년별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면담대상자 선정 시 전공 영역별, 학년별로 균형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생심리상담소에서 면담조사 참가 희망자 명단과 연락처를 인계받은 뒤 연구진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면담 장소, 시간을 정했다. 본 면담조사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총 20명으로, 한예중 상담지원실 상담원 2명, 학생 13명, 교수 5명이다.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2학년이 6명, 3학년이 2명, 4학년이 5명이다. <표 Ⅲ-1>에 제시된 면담참가자 인적사항의 순서는 면담이 수행된 순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개인 정보의 노출을 우려하여 전공은 명시하지 않았다.

31) 3장은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1 면담참가자 인적사항

	구 분	성별	학년	자격
1	A	여	-	상담원
2	B	여	-	상담원
3	C	남	-	교수
4	D	남	-	교수
5	E	여	3학년	학생
6	F	여	-	교수
7	G	남	-	교수
8	H	여	2학년	학생
9	I	여	2학년	학생
10	J	남	4학년	학생
11	K	여	4학년	학생
12	L	여	2학년	학생
13	M	남	2학년	학생
14	N	여	4학년	학생
15	O	남	2학년	학생
16	P	여	4학년	학생
17	Q	여	3학년	학생
18	R	여	2학년	학생
19	S	남	4학년	학생
20	T	남	-	교수

면담은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참가자들이 재학 또는 재직하고 캠퍼스 내 또는 부근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진행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면담조사 질문 내용은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한예종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상담인력, 청소년자살관련 현장 전문가, 타 대학 학생상담전문인력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였다.

2. 면담조사 분석

1)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성

면담 참가자들은 모두 한예종 학생들을 비롯하여 예술가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 예민하고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몇 가지로 수렴되었다. 먼저, 예술은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이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크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민한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완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음악예술의 특성상 사람을 되게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아니면 혹은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이론은 모르겠지만 예술하는 사람을 보면 일부로 막 그러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부분은 일부러 예민(한척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민해요. 그래야 (예술이) 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D교수, 남)

부조리한 일들을 못 참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원래 민감한 애들이고. (K학생, 4학년, 여)

예술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구분 짓는 것도 웃기지만 이 학교 다니는 애들 자체가 원래부터 민감하고 예민한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좀... 자극을 받으면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애들이고. 보통은 신경이 무뎠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보다는 더 많이 흔들린다고 해야 하나?(R학생, 2학년, 여)

다 감정이 너무 업 다운이 심해서... 저희 학교가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요. 저희 과만 봐도..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심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래도.. 밖으로 티를 안내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은 바로 티 나서 주위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복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한 군데 뒀다 치우쳐 저서... 다른 거에는 관심거리가 없으니깐... 그래서.. (H학생, 2학년)

(예민함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나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야 하게 되면.. 외국의 많은 아티스트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은 되게 예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라든가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D교수, 남)

예술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작업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예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창의성과 상상력,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자기절제와 고독이 수반되는 예술작업자체가 불균형한 정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면담에 참가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유사한 응답을 했다. 소위 ‘균형잡히고 정상적인’ 정서나 생활방식을 강조하게 되면 주목할 만한 예술활동을 하기 어렵고, 전문예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특한 학생들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이죠... 기괴한 상상력, 확실히 제가 느낀 바로는 인생이 균형이 맞으면 창의성과 상상이 떨어져 창작이 힘들어져요. 너무 조화롭고 밸런스를 맞추고, 정리를 잘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창작에 별로 주목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참 딜레마죠 그래서 뭐 결국 취약 위험군이라고 불리운 그런 조사 항목에 그런 어떤 창의적인 속성들이 맞닿아 있다고 느끼고 있죠. (C교수, 남)

집착과 집요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의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즘 잘나가는 일본의 ○○ 작가는 이미 국제적으로 대스타인데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정신병동에 있어요. 집착과 집요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의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다가 그 상태 ... 노멀하고 평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을 어떻게 끄집어 내길 원하고...(G교수, 남)

창작활동에 불타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진짜 마음에 드는 작업을 할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몇 번을 다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인데도 진짜 미칠 것같이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혼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다 쓰레기통 발로 차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데 매 모든 작업을 그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우울증도 심하고... 뭐라고 해야 하지. 술을 마셔

도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서 엉엉 운다던지.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친구도 너무 많고. 유난히 자기 작업에 애착이 큰 친구들이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Q학생, 3학년, 여)

예술은요 자학적인 예술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어요. 자학적이라는 것은 자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부단히... 또 이 예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고독인거죠... 내가 친구들 하고 놀고는 싶지만, 놀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아니야, 나는 이걸 부단히도 해야 해 거기서 얻어지는 성과가 굉장히 크죠. 반면에 그렇게 했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자살이 되는거죠.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이룩될 수 없어요.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F교수, 여)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저도 한창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 정신상태가 뭐라 그럴까? 하여튼 모든게 다 불안정해져요. 잠자는 시간도 불안정해지면서 밥먹는 시간도 불안정해져요. 모든게 다 불안정해지는... 그....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는 것들이니까.... 되게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곡을 쓴다는 작업을 할 때에는 책상에 앉아서 해야지 한다고 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막 그 에너지를 초 집중을 해야 조금씩 조금씩 아이디어가 나오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D교수, 남)

표출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표출하는 것인데.. 사실 그 과정이 말이 쉽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 항상 그거를 표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점점 심화되고 너무 그것이 일상화 되니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아이들은 이 학교에 대한 환상들이 너무 너무 큰데 그 환상들이 하나하나 다 깨져가는.. 물론 그게 실제와 현실과 환상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상처를 받게되더라고요.. 너무 쇼크를 받아서.. 어.. 이것이 내가 꿈꿔왔던 것인가? (J학생, 2학년)

그게 좀...어... 어쩔수 없는 측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고민해서 뭔가 만들어 내야 하니깐.. 오히려 들어가서 나와야 하는데...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니깐. 예술은 그런 것 같거든요. 자신의 고통을... 고통에 빠지면 환자인데.. 나와서 이걸 승화시켜서 표현을 해서 남들한테 감동을 주는게 예술가인데.... 못나와서.. 어떤 선배는 다들.. 그렇

게 표현했는데.. 자살이 아니라 살려고 그 아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살려고 그랬다... 현실에서 그렇게 살면 .. 죽어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살기 위해서는 죽는게 더...(N학생, 4학년, 여)

(좋은 작품을 하려면) 그 (창작의)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현실과 자신의 창작세계 안에서 좀 묘한 경쟁을 느끼고.. 그것이 만약 협업에 상태로 나타나면 인제 눈에 띄는 데, 잘 안 드러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C교수, 남)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술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받을 수는 없거든요. 곧 스트레스자체가 성장의 발판인거지, 스트레스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아닌 이것을 계기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했고, 꼭 어떠한 이유에서 그게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면 자아 상실이 되는 거죠. (F교수, 여)

뛰어난 예술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독특한 사고 방식이나 새로운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학생 선발 시 선호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한 면을 가진 학생들이 예술영재 교육기관에 입학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예술작업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독특성이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G교수는 한예종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예종이) 새로운 경험을 했던 애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 이) 작가로서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제를 두었다면 그런 아이들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전에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치유하거나 고안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학교 시스템이 있어야겠죠.(G교수, 남)

학교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만나면. 만약에 다른 인문대학을 갔다면 왕따를 당했을, 자기 사고가 너무 독특하고 4차원이 아니고 5차원까지. 머리에 꽃 꽃고 다니고. 특이하게. 그런 애들도 많고... 저희 동기 중에는 굉장히 특출한 재능이 있고... 천재다 소리 듣고 온 애가 있는데요... 조금 말을 해보면 사회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하나... 대답을 잘 못하고 눈을 잘 못 마주치는...처음에는 나 빼고 다 포라이인 것 같았는데 학교 이렇게

쭉 다녀보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우리는 그냥 평범한 거구나. 근데 이게요. 밖에 저 인문계 친구들 만나보면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한예종에서는 평범한데 한예종 아닌 친구들 만나면 넌 좀 특이하다... 뭐지... 우리 학교는 대체 얼마나 특이한 거지.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S학생, 4학년, 남)

영재교육기관의 주된 목적은 해당 영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탁월성에 이르기 위한 많은 노력과 혹독한 훈련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비단 예술영재교육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영재교육기관처럼 한예종의 교육과정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밤을 새는 등 불규칙한 생활패턴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음...그냥 거의 개강하면 학교에서 밤을 다 새고...한 학기 내내... 다 학교에서 자고...(I학생, 2학년, 여)

밤새면서 거의 한학기가 지나가는.....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D교수, 남)

예를 들어 무슨 곡을 쓴다는 작업을 할 때에는 책상에 앉아서 해야지 한다고 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막 그 에너지를 초집중을 해야 조금씩 조금씩 아이디어가 나오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늘 해오던 생활의 패턴을 못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더 불안정해지고... (D교수, 남)

글을 쓰려면 자기가 아무리 웃고 기분이 좋고 그래도 글을 쓰려면 기분을 다운을 시켜야 한대요. 그래야 글이 잘써지니깐...(E학생, 3학년, 여)

음악 전공 교수인 D교수는 음악전공생 중 작업한 작품을 발표하고 난 뒤 느끼는 허무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편, 한예종 학생들 중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창작의 방향이 삶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어 이러한 경향이 학생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이 우울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우울해요. 아주 세계적으로 막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되게 그런게 있어요. 저도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고 끝이 나면 되게 허무해요. 뭔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물론 그런 시기가 짧고 그 다음 작품들을 생각하고 또 작업을 한창 하다보면 그런게 없어지고 그러는데 연주하는 친구들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열심히 죽어라 연습해서 발표를 하면 환호를 얻고 하더라도, 그런게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한 거죠. (D교수, 남)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들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살을) 실행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한 친구는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힘들어서...(K학생, 4학년, 여)

요즘 사람들이 창작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다 그런 거예요. 죽음, 내적 갈등. 어둠. (J학생, 4학년, 남)

2) 동전의 양면: 우울감과 열등감

본 연구의 면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한예종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한예종 학생들은 자신이 명성이 높은 학교에 입학하여 일원인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이나 우울감을 느끼지만 다른 학생들에 대해 경쟁심을 갖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학생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뭔가 열등감 같은 것도 있어요. 뭔가.. 다들 뭔가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다들 뭔가 엄청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는 뭔가 안하는 것 같고... 그런거.. 현대인들... 다 그렇게 다들 열심히... 나는 안그런거 같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뒤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재능면에서는 재능이 없나? 그런 질문을...생각도 들고.. 그러니깐. 뭔가 불안하고.. (N학생, 4학년, 여)

안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가만히 나뉘도 자기가 루저라는 생각에서 싸워 내기가 힘들텐데... 내가 막 천재적으로 하면 선생님들도 막 아무 말 못할텐데.. 내가 못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꼬투리를 쥐서... 그렇게 된거니깐...(P학생, 4학년, 여)

주변을 둘러 볼 때,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이라고 쳐요. 동기생 중에.. 혹은 후배 중에 나보다 잘난 잘하는... 그게 많은 거예요. (T교수, 남)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고 해야 하나... 보이지 않는 경쟁의 압박, 극단적인 자기 이상에 대한 자기가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괴리(C교수, 남)

이러한 열등감과 경쟁심리는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두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학교나 교수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되는 경향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소수에게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폐쇄성.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엘리트 의식이라던가 우월감.. 이런것 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더 문제가 되는 자기 자라온 환경 안에서는 정말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칭송받았지만, 막상 와서는 너무 뛰어난 애들이 많으니깐 열등감으로 바로 섞이는 거죠. 우월감이 한편에 있고, 이 안에서는 폐쇄적인 부분이 있더라구요. 작품을 만드는 것에서 공유를 안하는거...(C교수, 남)

정말 특출난 능력이 있는 애들을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애는 우리 과에서 대회까지 이끌어 나가서 1등 한다. 그러면 모든 집중은 개한테만 가는거예요. 모든 집중은 개한테만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태된 상태로 있으니까... 정말 다 같이 잘해야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학생들, 이 학교까지 온 친구들도 정말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진짜 특출난 재능이 있고. 근데 너무 소수한테만 집중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나머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은 자기 재능에 비해서 더 발전을 하거나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없고, 그 상태로 머물러서 좀 불편하죠.... (S학생, 4학년, 남)

자기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 콩쿨에서 1등한다고 하면 굉장히 주눅이 들죠. 그리고 (주눅든 마음을) 표현 할 수 없으니까(D교수, 남)

3) 높은 기대수준과 크리틱 수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한예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탁월성, 차별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예술영역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영재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면담에 참가한 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대수준이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밖에 없을만큼 과도하게 높다고 느끼며 이에 도달하지 못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각원, 각과마다 굉장히 타이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혀 여유가 없죠.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과제를 해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힘겨운 그런 상태...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대체로 과마다 커리큘럼이 소위 빡세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학교 풍토가 학생들을 무조건 빡세게 굴려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D교수, 남)

극소수의 (우수한) 결과물을 모든 사람들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요. (J학생, 4학년, 남)

우리가 배우려고 가는 건데..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좀.. 나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지만.. 별로 안 가르쳐 주고.. 결과를 엄청난 것을.. 진짜 프로들처럼..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막 배우는데.. 그런거에서.. 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깐...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는 또 왜 이럴까? 자괴감 생기죠. (P학생, 4학년, 여)

한예종 학생들이 ‘크리틱’ 이라고 부르는 ‘비평을 통한 교수’ 방법은 예술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크리틱이 자신의 단점을 알고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학생도 있지만, 면담참가자들 대부분이 크리틱 수업시간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좌절감이나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 중 크리틱이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지는 건설적인 비평이라기보다는 재능과 실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수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할 때 걸리지 않은 언어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또 대안이 없는 비평을 하거나, 기대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다. 비평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지만, 비평 수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재능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의욕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기도 한다.

저는 약이 되는 좋은 크리티크라고 생각해요. (S학생, 4학년, 남)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것을 줌.. 말을 한번 걸러 줘야 하는 데.. 그냥 한 번에 팍팍팍 들어야 하니깐. 계속 들어야 하니깐.. 수정을.. 시정을 할 새도 없이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깐..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고쳐지는 것도 약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L학생, 2학년, 여)

면접자: 그럴 땐 주로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을 못 들어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은 그저 시정해 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잘했어? 잘됐어? 물어보면은... 뭘 했다고.. 뭐라고 들은 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L학생, 2학년, 여)

면접자: 극복을 못했다는 것은 수업을 안 들었었다는 뜻인가요?

그때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 안그랬으면 위험했을 것 같아요. (L학생, 2학년, 여)

면접자: '위험했다' 라는 것이?

막 그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과제를 해가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앉아서... 제 작업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가 방법.. 크리티크라는 것이 좀 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해줘야 그런건데... 조금 그게 왜곡돼서... 그냥 이거는 뭔가 마음에 안들고.. 특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자기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업 받기 전에는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수업 받은 후에는 불안하고 괴로워 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그랬는데..(L학생, 2학년, 여)

만약 뭘 만들어 왔으면... 내가 잘한 점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하시고... 계속 고칠 점... 그걸 말해주면 좋긴 좋은데... 사실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기고만장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들어오는 건 없고, 그런 식으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만 하시니깐. 나중에 좀 왜 의기소침해진다고 해야 하나? ... 스트레스도 받고... 저는 막 진짜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왔다. 그랬는데도.. 돌아오는게 별로 막 없으면... 너는.. 그 수준 밖에 안된다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밤을 새도 이정도 밖에 안되나? (I학생, 2학년, 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교수님들이) 좀 더 지지하고.. 좋은 말.. 이끌어 주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벌써부터 크리틱하고 막.. 싹을 잘라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심어 주어야지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가져가 버리니깐... 의욕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니깐.. 결국은.. 언행이라던가 그런 행동들이 많으니깐..(P학생, 4학년, 여)

의견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을 마치.. 재단해 버리는 가능성을 버리고, 끝인 것 처럼...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J 학생, 4학년, 남)

저는 (크리틱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애는 받고... 개인의 차이잖아요. (크리틱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순 없지만 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선생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백(rejection)인지, 왜 안되는지... (Q학생, 3학년, 여)

그래도 무조건 (다른 사람) 작품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나 말을... 그런 비방을 해야 해요. 교수님들이 안 좋은 이야기 하라고 부추기고 그래요. 나중 댜서는 정말 인신공격을 하는 애들도 있고... 저희 과는 아닌데 다른 과 애가 크리틱을 하는데, 어떤 애가 너는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작품도 그렇게 만드냐고 막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구요...(I학생, 2학년, 여)

교수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신랄한 비판을 하면 학생들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비판보다는 도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하고, 진로를 결정해야할 시기인 고학년이 되면 학생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평가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 내 날개를 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성향을 가진지 몰라요. 정말 지금은 못하지만 이것을 감싸주고 꼬집어 내줌으로써 무한하게 표출할 수 있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그 날개를 접어...나는 안되나 보다..... 더 자기를 위축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1,2학년에서는 절대로 기를 죽여서는 안되요. 이제 3학년부터는 자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때야 말로 진로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너는 이거 안돼. 너는 거기 갈 수 있어 없어라고 이야기 하면 절대 안되요. 아이가 도전하고자 하는 데를 도전 해보아야 해요. 아니더라도..(F교수, 여)

4) 인간관계

(1) 학생들 간 관계

한예중 학생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한예중에 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거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입학하고 나서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 풍토가 강하고 학생들 간 경쟁심이나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예민한 경향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인작업 방식으로 작품을 하는 예술 분야의 경우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전공 간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협업을 한 경험이 개인주의적이고 단절적인 인간관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인간관계들이 굉장히 단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한동안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획 바뀌어요. 굉장히 무슨..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인간관계들도 굉장히.... 냄비 같아요.(J학생, 4학년, 남)

저는 그냥 대학교 오면, 저도 모르고 들어 왔으니깐, 들어오면 애들끼리 툭 터놓고 이야기 다 하고, 이것저것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많이 닫혀 있고, 자기 드러내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걸 무서워하면 작업이 안 나오고. 근데 드러내기는 좀 그렇고.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R학생, 2학년, 여)

거의 감기처럼 우울증 앓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게 개인주의랑 연결이 되는데, 다들 자기 일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학생들 서로도 하고 교수님도 하다보니까 힘들어해도 그냥 학교작업이 힘든가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K학생, 4학년, 여)

고민을 같이 이야기해도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린 충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서로 이제 고민들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안 보이는 암투가 대단하거든요. (J학생, 4학년, 남)

이 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 지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좀 두려워질 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가벼운 대화 아닌 이상 깊은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닌데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깊은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유대감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학교생활, 과제, 교수님, 동기들? 끝인 것 같아요. (R학생, 2학년, 여)

그런데 협업이 아니잖아요. 일단 개인으로 폐쇄적으로 해도 별로 눈에 안 띄는 상황이 됐죠. (C교수, 남)

(다른 학번과 달리) 저희 학번 애들이 친해지게 된 동기가 그걸 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1학년때 팀 작업을 했거든요.... 그거 엄청 어려워요. 그거를 3-4명씩 해서 팀작업을 했거든요. 다른 학번들은 안했어요.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엄청 진짜 엄청 싸우고 다시 사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이 작업을 해서... (H 학생, 2학년, 여)

(2) 사제관계

예술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계적인 사제관계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는 도제식교육은 예술교육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에 더해 예술계에서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교수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점이 사제관계의 위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사제관계 문화와 예술교육에서의 도제식 교육의 특성이 더해져 한예종의

사제관계는 위계적인 특성을 띤다. 한예종의 교수들은 전문 예술인을 길러내야 한다는 데 책임감과 부담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과 지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해, 학생들은 위계적인 사제관계나 권위적이 교수방법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이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한국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도 그렇게 자라왔고.. 그러니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권위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나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또.. 만드는데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제 마음대로 못하니깐.. 제 마음대로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P학생, 4학년, 여)

그러면서 또 저보고 뭐라고 해요. 그냥 조용히 있어라. 토 달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개네들한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니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물어보다가 아차 싶은 적도 많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을 걸 그런 것도 많고... (Q학생, 3학년, 여)

실기 중심의 학교다 보니 도제식 교육이 강한 지점이 있죠. 선생과 제자간의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 하죠.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있는... 말하자면 선생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를 잘 챙기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풍토가 있는 것 같고...(D교수, 남)

(교수님이 제 작품을) 그냥 보지도 않고 결눈질 몇 번 하더니 갖다 버리라고 하고...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E학생, 3학년, 여)

너는 이걸 참 잘한다. 이런 점은 별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무조건 “아! 구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크리티키 솔직히 사람이 하는 거니깐 객관적인 크리티키란게 백퍼센트 불가능할 거란 걸 알긴 하는데 인신공격을 하는 분이 있어서... 아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R학생, 2학년, 여)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가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위계질서가 너무 강한 과는 너무 강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뭔가 불만이 분명 있고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게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전달 할 수가 없는 거죠. (D교수, 남)

교수들이 교육받은 방식과 학생들의 경험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생 때 경험했던 방식을 지금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한 교수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수들의 교수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학생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에 대해 교수들 간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D교수는 교수들도 자신만의 강한 성향을 가진 예술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의제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교수님들이 애들을 함부로 하죠. 애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게 있죠. 애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대통령 말도 안듣는데...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니깐.. 스트레스가... 이거는 자기 방을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거고... 남의 방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건데... 제 제자들이 제 방에 들어 왔을 때는 안보여요. 근데 제자들이... 학생들이 다른 교수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보이죠.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함부로 하시죠. (T교수, 남)

면접자: 동료 교수님들도 우리도 뭔가 바뀌야해 이런 말을 주고 받으시나요?
아니요... 그게 그게... 손톱의 끝 만큼만 시각이 틀려도... 니 잘났다... 이런 마음... 교수 사회는요...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여기 교수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대가라... .. 그 자부심이 어떠하겠으며...(T교수, 남)

(애들이 불만을 이야기 하면) 선생님들도 기분 나쁘시죠. 선생님들도 예술가이지않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성향이 너무 강해요. (D교수, 남)

5) 진로 고민과 진로 지도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선택한 예술 영역에서 어떤 진로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현실적인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해 보거나 진로지도로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고등학교 단계까지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소위 명문 대학에 입학하면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이후 진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이 점차 강해지고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들어오기 전에는 대학(입학)을 위해 신경을 쓰지 그 이후는 신경을 안쓰니깐.. 들어와서 느끼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깐.. 저도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안하고... 여기 학교만 가야 겠다... (P학생, 4학년, 여)

뭔가... 여기(한예중)에서 나오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니깐 잘 모르겠어요. (E학생, 3학년, 여)

저희 학교에 오시면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굉장히 잘못된 건데.. 위험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인생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화려한 것만 치우치게 해서 판단을 흐트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J학생, 4학년, 남)

그리고 예술가가 요즘에 이 학교를 벗어나면 할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너무 이게... (N학생, 4학년, 여)

막연한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학교가 나를 압박하고, 그렇다고 생활이 편한 것도 아니고, 진로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은 있어서 들어왔는데, 내 꿈을 실현시키려 들어 왔는데, 주변에서는 그러죠. 너는 좋겠다, 너의 꿈을 밝고 있구나, 이러는데 사실 내가 처한 상황은 되게 비참하고 힘들어요.(K학생, 4학년, 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네... 진로예요. 그냥 “우리 졸업하고 뭐해?” 웃으면서 말해요... 졸업하고 뭘해야 할 지 몰라 학생들이 막연해요... 선배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 학과를 나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연하기만 하고, 뭔가 보여지는 사례가 없으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E학생, 3학년, 여)

다들 보면 자신이 없어 보여요. 저희과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직할 수 있는 건가? 그냥 거의 기대는 안하고 있는... (P학생, 4학년, 여)

여기는 실업자 양성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I학생, 2학년, 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뭐 악기하는 친구들은 연주자가 되고 싶어서 왔고, 작

곡가도 세계 최고의 작곡가가 될거야 하고 왔는데 졸업하면 사실 쉽진 않잖아요. 현실적인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 방향을 많이 해요. 예술가로서 순수하게 학교는 가르치는데 막상 나오면 예술가가 될 수 없는 환경이고. 돈도 벌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고. 현실적인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뭘 할까...(S학생, 4학년, 남)

특히 자신의 주도적인 의사가 아니거나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이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무엇에 몰두해야할 지를 찾는데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부정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입시준비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진로 방향을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기가 정말 재미있고 좋아서 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라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더 힘들어 하죠. 중간에 갈팡질팡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D교수, 남)

(한예종은 예술에) 몰두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몰두하지 않으면 할게 없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엄청 방향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대개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들기 전에 어떤 상황이나면... 엄청 좋은 학교에 들어 왔어요. 천재들만 있다, 이라고 들어왔는데, 근데.. 자기가 할 것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자기가 할 것을 찾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이게 엄청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눈치봐요. 서로... 저 아이는 엄청 대단한 아이들이겠지? 눈이보면서... 자기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해요. 자꾸 과제라든지.. 근데 그것도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1학기 정도에... 애들이 눈치 보느라 그래요. 선배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니깐... 교수님들도... 그런 압박 속에서 엄청 하다가 2학기 되면 아 그런거 없구나...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놔버려요. 학교도 안나오고...(H학생, 2학년, 여)

학생들은 교수들이 자신들의 진로 고민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비록 이해한다고 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교수들도 있지만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 자신들이 걸어온 길 이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진로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을 통해 진로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뭐 할지 모르니깐 우리도 약간 심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진로... 솔직히 대학원 아니면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졸업이 무섭고, 뭐 교수님들과 이야기 하면.. 학자잖아요. 일단.. 그러니깐... “대학원 가” 이런 반응이니까.. (교수님들은 우리가) 왜 고민하는지 모르는 거죠. 본질적으로 잘 모르시는 거죠.. (E학생, 3학년, 여)

(교수님과 진로문제 이야기) 많이 하죠. 답은 안 나와요... 그냥 술이나 먹자.(N학생, 4학년, 여)

(진로 고민을 교수님들과) 이야기 해봤어요. 근데 다들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니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당연한 말이긴 한데... (H학생, 2학년, 여)

다른 전공은 잘 모르겠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들 나중에 4학년 되어서 힘들어지고 자기 갈 길 모르겠으면 한 번씩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길을.. 어디 소개 시켜준다던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K학생, 4학년, 여)

사실상 유학이나 대학원에 가는 이유도 공부라기보다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S학생, 4학년, 남)

청년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비단 예술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예술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타 영역에 비해 더 심각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의 한예종 학생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생과 재학생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을 한다거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先輩들이 진출한 진로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다.

서로 이런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너만 느끼는 것은 아니야...이런 것을 심어 주는 것 과... 솔직히 우리원만 이런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류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학생들 간에... 선생님들과도 많은 시간을 수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L학생, 2학년, 여)

순수예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진로 같은 거. 3, 4학년 되면 그런 창구도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학교가 정말 개인적인데, 졸업하고 나면 순수예술 하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학교 안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졸업한 선배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이 길을 갔는데 이게 의외로 잘 풀리더라, 이런 세미나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졸업한 후에도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학교에서 조직해서 한 번은 학교로 돌아오자, 홈커밍나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안 나오면 안 나오더라도. 나오면 아, 애는 이렇게 됐구나, 아니면 거기서 얘기하다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K학생, 4학년, 여)

저희가 매년 건의의 사항으로 (선배와의 대화를) 매년 요구해요. 이번에도 하면서 재학생들한테 건의사항 받아가지고 넘겨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동문회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올해 나왔어요. (E학생, 3학년, 여)

한예종에 입학한 모든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전문 예술인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 예술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교과목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형편이다. 흥미로운 점은, 면담조사에 참가한 학생 중 자신의 전공 영역 이외에서 진로를 찾을 의사나 계획을 언급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전망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예종 학생들은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하는데 소극적인 특성을 보인다. 교수 중에도 비록 순수 예술가의 길이 아니더라도 유사 영역에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별도로 없다.

면접자: 교수님 보시기에 (이곳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나간 아이들이 반은 되나요?

반... 반 안될 것 같은데요(D교수, 남)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의상, 스텝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해준다는 것처럼 가이드를 해주고, 꼭 내가 무대인이 안되더라도 그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을 형성해주던가 아니면,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해요.(T교수, 남)

6)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부재

한예중 학생들은 학업과 작품에 대한 부담이 많고 인간관계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지만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 특히 운동시설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음주나 흡연으로 해소하게 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수업을 좀 몸을 쓰는 걸...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저희가 실기 수업이나 이런거
를 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뭔가 다같이 뭔가 몸을 써가지고 하면은.. 그런데 막 학
년이 올라 갈수록 자기 전공에만 치우쳐 지나간... 이게 오히려 더 그 개인의 틀 안에
계속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N학생, 4학년, 여)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학생들은 또 일이 대부분
되게 많아요. 밤샘 작업도 하고... 그럴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죠. (O학생, 2학년, 남)

함께 없으니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앉아서 그냥 술마시는 거예요. 맨날 담
배피고.. 애들 진짜 많이 담배 펴요. (H 학생, 2학년)

술이요? 분위기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분위기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세기말인줄 알았어요... 세상 끝날 듯이 마시니깐...(N 학생, 4학년)

7)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의 개입에 대한 한예중 구성원들의 평가 및 요구

2011년에 연이은 자살사고 이후 학교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의 이러한 노력에 교수진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지원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수들도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대응방안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학생들은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학생들한테 학교가 심리치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끊임없이 계속 면담하고,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없으면 다른 지역에다가 만들어줘 가지고 네트워크 해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우리(교수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하고 연결하고.. 거기서 좋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휴학을 해서 완치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물망처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G교수, 남)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주나요?) 없는 것 같아요. 도태되면 그냥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끼는 교수님이라도 왜 학교 안나와? 이런 전화 가끔 해 주시고, 그런 것 밖에 없지... 이렇게 따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H학생, 2학년, 여)

면접자: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학생들을 위한 학과 내에서의 관리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까지는 아닌데 사실 (위험해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죠. 학사 경고자라든가 부모랑 통화하고... 저는 사실은 부모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휴학할 때마다 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통화를 해요. 애들 앞에 있고, 부모님과 통화하고 하면 아이들에게 더 감이 오는 것도 있고... 몇 번 빠지면 다시 조금 확인하고 그런 것 보다는 전체 작품이나 이런 쪽을 가정하고 매칭을 시켜서 하는 편입니다. (C교수, 남)

하도 소수라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교수님들이... 관심은 많은데.. 도태되면 별로 안 도와주고... 안하는 애들한테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 챙겨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쩌다 한번씩 마주치면... 학교 왜 안 나오냐? 그런 말 한마디 툭툭 던지고,, 끝인 것 같아요. (H학생, 2학년, 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가 아는 한에서 있어서는 (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케어는 없어요. (K학생, 4학년, 여)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심리상담소의 상담 서비스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평가하였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학생들의 상담 요구를 면대면 상담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상담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세미나나 특강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다.

학기 초에 전화를 했는데 2달. 정도는 꼭 차가지고.. 대기에 올려 드릴까요? 그러더라
요. 일단 올려달라고 했는데.. 진짜 학교 한 학기 끝날 때 쯤 그때 이제 상담해줄 수 있
을 것 같다고.. 근데 개는 그때 되니깐.. 난 그때 힘들었던 건데.. 이제 와서 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안 간다고... 당장 힘들었던 걸 말해야 하는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상담센터에 가서 자꾸 이야기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 좀 별로 인 것 같아
요. (I학생, 2학년, 여)

전화해보면은... 매일 상담 차 있고, 바빠서 거의 모든 학생이 필요할 때 수용하기가 어
려움이 있죠. 그런 치료나 말고는 특별히 더.. 뭔가... 교수님한테 찾아가면 되겠지만 그
래도 좀 열린 소통이 그런게 많이 어려워요. (L학생, 2학년, 여)

학교 (온라인)커뮤니티에 상담방을 만드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바로 얼굴 맞대
고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더 상담 받기 쉬울 것 같고... (H학생, 2학년, 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 이런 세미나나 특강 같은 걸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
교 때도 물론 입시로 힘들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달리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수는 높는데 어디에 제대로 풀 시간도 없고,
풀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상담창
구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K학생, 4학년 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학교와 교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수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T교수의 의견은 예술영재교육기관으로서 전문예술인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측면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한예종 학생들의 자살사건의 책임이 학생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한 학교 당국이나 교수들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나타내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사회의 관련 전문 기관과 학교 내에서는 인문학 관련 교수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아무튼 유명한 쉰베르그가 나중에 대학에 작곡가 교수를 하시면서, 그때 그분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수업시간에 인간적인 것, 인격, 왜 가르치느냐?.. 나는 지금 작곡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가르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세상에, 아니.. 삶의 어떤 가치, 삶의 의미, 존재, 화목한 사회, 인류의 평화,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입력시킬 만한 시스템, 사람, 기관이 대한민국에 없냐구요. 수다한 교회, 수다한 절, ... 교육부, 문화부 다 뭐하고 왜 실기 가르쳐 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시간... 하루 만나서 30분 정도 만나고... 이 시간에 이걸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실기 가르치는 교수들은 아이들에게 지금.. 애가 지금 나 만나고 다음 주 까지 연습해와야 할 걸 가르칠 시간도 모자란데..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삶이 어떻고, 너네 엄마가 어떻고, 너네 아빠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거 할 교수가 없어서... 국문학교수, 철학교수, 인문학교수, 다 뭐하고... (T교수, 남)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교수가 잘 파악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교수들이 다른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전공교수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직접 개입하라고 요구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위의 의견과 상통한다.

뭘 하고 있는지 고민이 뭔지...다 읽혀요. 읽히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예요. 야.... 진짜 아쉽다. 아... 정말로 좋은 성향을 봤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G교수, 남)

그런데 (교수들도)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의 그런 힘든 상태를 디테일하게 잘 챙겨줄만한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D교수, 남)

F교수의 경우 교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고민거리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거나 개입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필요이상의 관심을 뒀을 때 그 아

이에게 또 피해가 가요... 교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무관심할 때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동료들 간의 그거를 ... 나름대로 자기는 비밀로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결국은 ... 판 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올 수도 있는 건데.. 또 필요이상의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 학생만 특별히 뭘 하는 것처럼 그러거든요. 자연스럽게 조언을 해준다거나, 지나가면서 살짝 너 뭐하니?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그것도 눈에 안 띄게 해줘야 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체 학급에서도 무리가 없고...(F 교수, 여)

제 4 장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1. 자살예방메시지 전략의 중요성
2. 프레임이론과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3. 예방접종 이론과 자살예방 메시지 전략
4. 예술영재 청소년의 역량 강화의 사례
5. 소결

제 4 장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³²⁾

1. 자살예방메시지 전략의 중요성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서 앞서 있는 나라들의 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호주는 국가차원의 통합적 자살예방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LIFE(Living Is For Everyone)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 전략은 자살예방이 사회 각 분야의 공동책임임을 명확히 하면서 학계, 보건 전문가, 지역사회,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부문의 자살예방활동 육성에 목적을 두고 통합적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³³⁾ 영국 역시 자살예방의 목표가 되는 공중을 보다 섬세하게 세분화한다든지 미디어가 모방 자살을 부추기는, 이른 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를 차단하기 위한 미디어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기타 커뮤니케이션 증진 전략을 취하는 점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⁴⁾

일본은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을 추진하여 자살대책기본법(2006)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공표하였다(정진욱, 2011). 이들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 9월 10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로부터 일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선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전국 규모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에서 핵심 메시지 전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지의 수용자(audience)를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2) 4장은 최인호(명지대학교)와 김준홍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33) <http://www.livingisforeveryone.com.au/> 참조

34) 이는 영국의 방송 관련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http://www.ofcom.org.uk/tv/iii/codes/bcode/>를 참조할 수 있다. 자살과 자해의 방법은 편집상으로 정당하고 그 맥락이 정당한 경우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한국의 자살예방 정책의 현황을 나타내는 주요 사례들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개발을 위한 제언을 탐색해 내고자 한다. 그 중 자살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캠페인이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에서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에 대해서 보다 깊이 숙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시도경험자, 자살자의 유가족이나 친구 등 남겨진 사람들,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 예술영재와 같이 기존 임상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자살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이 수립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예술영재 청소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예술영재들의 자살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4명이 지난 2011년 5개월 동안 연이어 자살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건강 취약성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예술영재는 예술분야의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매우 극소수인 사례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예술에 있어서의 재능을 선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리킨다(Tannenbaum, 1983; 김선희, 2010).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이는 예술영재(김수현, 2010)는 정신건강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다. 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과 유사하게 색다른 아이디어나 경험을 향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Nettle, 2006),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Andreasen, 2008). 예술분야에 국한시킬 때, 창의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반드시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그 개연성은 높다. 예를 들어, 매우 창의적인 청소년은 그 특성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쌍극성장애증상으로 판정되기 십상이다.³⁵⁾

예술분야의 영재들은 자살사고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취약집단이자 고위험군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 방식으로 이들 예술영재들을 위한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메시지 전략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으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자살시도 경험자들(김준홍·윤영민, 2010)과 자살자의 유가족 등 남겨진 사람들(Farberow, 2000)과 같이 자살의 고위험군에 대한 기초연구나 중재전략 연구가 이루어진 점과 비교하면 이는 분명하다.

그런데 가장 원천적으로 자살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및 메시지 전략을 거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자살에 대해 어떤 종류의 메시지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자살에 대한 공개적 이야기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하는 시각(Arnautovska & Grad, 2010; Eskin, Voracek, Stieger,

35) 이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주의를 요하며, 어떤 경우에는 창의성이 있는 청소년과 정신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변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Sadre & Brock, 2008; Yarhouse & Turcic, 2003).

& Altinyazar, 2011)에서 비롯된다.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표본을 분석한 선행연구(김준홍 · 정영일, 2011: 120)에 따르면, 죽음생각은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나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 딜레마는 자살예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자살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 자살을 언급하기 위해서 죽음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딜레마-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과 자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살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죽음과 자살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해 논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 그 동안 중요한 이론으로 대두되고 적용되어 온 두 이론, 프레임이론과 예방접종이론을 준거 틀로 활용하여 자살예방 메시지 전략을 구상하고 탐색해 보려 한다.

2. 프레임이론과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자살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구성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우선 프레임 이론을 검토해 보자. 학술적으로 프레임(틀) 혹은 프레이밍(틀짓기 혹은 프레임 사용하기)의 용법은 아주 다양하다(Hallahan, 1999; 김준홍 · 김유석 · 김승현, 2010). 그 중에서 Kahnemann과 Tversky(1979), 그리고 Tversky와 Kahnemann(1981)가 기초를 다진 소위 전망이론에서 말하는 프레임/프레이밍에 대해 본 연구는 주목한다. 이 경우 프레임/프레이밍은 메시지를 구성할 때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할 경우 발생하는 심리적 여파의 차이를 가져오게 만드는 요소이다.³⁶⁾

전망이론 진영에서 발전한 이러한 프레임 이론은 행동경제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았지만, 다른 한편 인간의 건강과 위험과 관련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 · 예측하는 이론가와 실무자에 의해 계승되고 응용되었다. 프레임 요인은 이득(gain)의 프레임과 손실(loss)의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득 프레이밍은 메시지에서 권유하는 처신을 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36) Kahnemann et al.,(1979), Tversky et al.,(1981)의 논문은 전망이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전망이론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언제나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림셈(heuristic)을 하여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편향성(bias)이 불가피하다(Kahnemann et al., 1979). 특히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체계적 · 합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보다는 어림셈으로 정보처리를 한다. 전망이론에서 말하는 어림셈 정보처리란 이득이 예상될 경우의 위험을 회피하고 손실이 예상될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양상을 말한다(Tversky et al., 1981).

긍정적 전망을 내세우는 반면, 손실 프레이밍은 메시지에서 권유하는 처신을 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부정적 전망으로써 경고한다(Shen & Dillard, 2007). 한마디로, 메시지의 프레이밍은 사람들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 메시지 구성요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자살예방을 촉진시키려면, 이득과 손실의 두 가지 프레이밍 중에서 어떤 프레이밍이 보다 효과적일까?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진영에서는 대체로 손실프레이밍의 틀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이득프레이밍의 틀을 가지는 메시지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Kalichman & Coley, 1995; Meyerowitz & Chaiken, 1987). 메시지가 이득을 프레이밍 할 때에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만, 메시지가 손실을 프레이밍 할 때에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전망이론을 재발견, 재해석한 것이다. 이익과 손실의 절대치가 같지만 지각되는 손실의 가치가 지각되는 이익의 가치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견 비슷한 메시지의 권고라 하더라도 이득 프레이밍으로 전달할 때에 비하여 손실 프레이밍으로 전달할 때 메시지의 설득 효과(persuasive effects)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논증하고 설명했던 것이다. 물론 경험적 검증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을 가져오려는 메시지 전략에서 손실프레이밍의 틀로써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례로 이득프레이밍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손실프레이밍의 메시지보다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득 프레이밍의 메시지 전달이 섹크림이나 콘돔의 사용과 같은 질병 예방적 행동을 권고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연구자들이 있었고(Rothman & Salovey, 1997; Rothman, Bartels, Wlaschin, & Salovey, 2006), 질병과 건강행동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피부암 검사 등 질병의 검진 행동, 자외선 노출의 방지 등 질병의 예방 행동 등 메시지가 옹호하는 행동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 고찰한 결과 기존의 논의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분석(O' Keefe & Jensen, 2008, 2009)도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김준홍과 윤영민(2010)의 연구는 이득과 손실의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를 설명·예측할 때 질병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AIDS와 같은 질병영역의 경우 손실이나 이득이나 하는 메시지 프레이밍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실과 이득 프레이밍 효과 차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손실, 이득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는데(이준웅, 2000), 메시지 수용자(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가 가지는 AIDS 감염 확률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매우 낮아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김준홍과 윤영민(2010)은 메시지가 관여하는 질병·건강·위험 등의 영역에 따른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살예방 분야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살예방 분야는 김준홍과 윤영민(2010)이

말한 위중도와 발생확률에 따른 분류체계에서 ‘높은 위중도’와 ‘낮은 발생확률’을 보여주는 위험영역에 속한다. 위험의 크기는 피해의 위중도 크기와 피해발생 확률의 곱으로 구해지는데, 이를 자살사고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자살은 위중도(심각성) 수준이 매우 높은 일탈적 행동으로 여겨진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자살사고의 경우 자살자에게 귀착되는 위중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지만, 유족 등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상당한 부담을 산출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살계획자는 커다란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만약 실패한 자살, 곧 사망에 이르지 못하고 좌절된 자살시도를 생각해 본다면, 자살시도 이후에 자살시도자가 지니는 심리사회적 외상은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고려해 볼 때 매우 높은 정도의 위중도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살이 높은 수준의 심각성을 가지는 행동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반면 그 발생확률은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는 우선 자살위험이 자신을 배제한 다른 사람 곧 제3자에게 닥칠 것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제3자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관적 편견은 일종의 지각적 편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자신과 타인이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사실상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적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을 말한다(Weinstein, 1980). 다음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낙인효과가 제3자 효과를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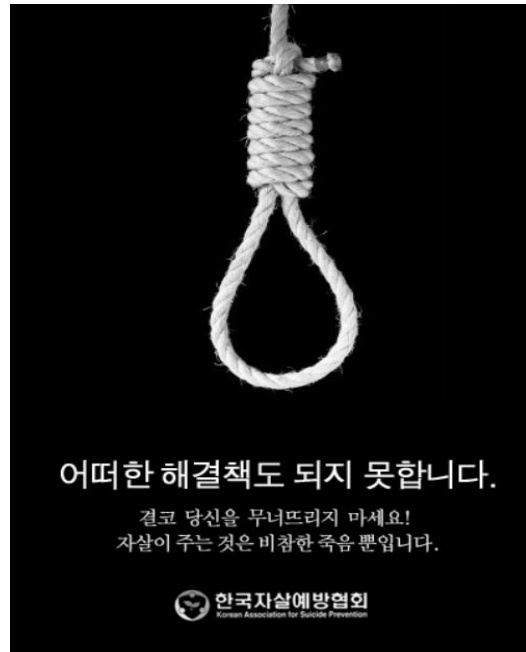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자살의 경우 피해의 위중도 크기는 매우 크다고 지각되지만, 그 발생 확률 값이 아주 작다고 지각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곱으로 구해지는 자살위험의 크기에 대한 지각은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위험 분야는 AIDS 분야와 유사하게(김준홍·윤영민, 2010) 손실과 이득 프레임 효과 차이가 나타나기 위한 필요조건인 충분한 크기의 손실, 이득이 제시되기 어렵다. 그 결과 자살예방 메시지에서 손실프레임과 이득프레임의 메시지 효과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자살예방 메시지에는 손실 프레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달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소위 위협에 의한 공포소구(fear appeal)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자들의 묵시적 신뢰의 결과일 것이다. 아래 공익광고 포스터는 우리나라의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들어서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매우 강력한 손실의 프레임링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살자의 생명과 명예의 돌이킬 수 없는 실추라는 식으로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포스터 이미지는 이보다 덜 자극적이긴 하지만 유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와 텍스트 메시지에 노출된 수용자가 반감/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된 메시지 노출의 대상으로 설정한 예술영재 청소년의 높은 창의성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들의 생명에 대한 애정과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



【그림 IV-1】 공익광고협회의 자살예방 포스터



【그림 IV-2】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포스터

위와 같은 선정적인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과 손실 프레임의 과잉이 가지는 문제는 그러한 공포소구가 가지는 효과가 자살예방 분야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실험적 시도를 하였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논점은 자살예방 분야에서 손실프레임의 메시지가 반드시 문제점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긍정적 반응과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주된 수용자 집단의 특성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물론 손실프레임의 메시지가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손실을 큰 틀로

전달하지만 그것을 노골적인 방식으로 위협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잔잔하고 인상적으로 전달하면 오히려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아래 그림의 미국의 자살예방재단의 메시지 전략은 자살로 인한 손실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행성에서는 40초마다 한명씩 자살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한 손실에 못지않게) 41초마다 자살자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의 막대한 아픔과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기게 된다! 두 가지의 이어지는 시각적인 자극물을 제시하면서 자살의 손실과 여파에 대해서 심리사회적 의미를 반추하도록 자극하였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숙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진부하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림 IV-3】 미국 자살예방재단의 메시지

이처럼 손실의 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되 자살예방 메시지가 가질 수 있는 어색함, 위협적 요소 등으로 인한 거부감과 반감을 소거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유머러스한 감각을 살리는 메시지 전략이다. 자살과 유머는 함께 다뤄질 수 있는가? 아래 그림의 Trevor Lifeline³⁷⁾의 자살예방 메시지는 10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you have what it takes to save lives)’ 는 메시지는 자살예방을 위한 개인적 효능감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살을 예방하는 것,

37) <http://www.thetrevorproject.org/takeaction>에서 핵심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IV-4】 Trevor Lifeline 메시지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고 치열한 예술혼을
불태우는 예술영재 청소년에게 거부감과 저항
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손실
의 프레임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커뮤니케이션과 메시지 프레이밍
이론에서 손실 프레임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처럼 예술영재 청소년의 창
의적 특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메시지 전략이
요청된다.

아래 오른쪽의 사진은 일본의 어느 해안가에
설치된 표지판이다. 자살사고가 빈번한 장소
라고 한다. “잠깐 정지, 하드디스크는 지우셨
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 메시지 수용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소위 야한 동영상 파일을 떠올린다고 한다. 굳이 메시지의
프레임을 따지지 않더라도 메시지가 유머를 자아낸다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바로 뛰어내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 전달되는 메시지로서 유머 가득하고 발랄한 물음을

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봉투에 묶인 매듭을
푸는 만큼이나 간단할 수 있다. 다만 일상에서 저런
끈을 묶고 있는 친구나 주변 사람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작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저런 방식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자살의 시도자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련의 순간을 대면하고 있겠지만,
이를 희화화(戲畵化)할 수 있는 여유와 유머는 누군가
에게 있어야 한다.

Trevor Lifeline의 메시지는 유머의 미학이 손실
프레임의 메시지에 녹아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때로



【그림 IV-5】 일본 해안가 표지판의 자살예방 메시지

선택한 이유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례는 유머를 메시지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Samaritans)’의 경우와 같이 위기 카운슬링을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아래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IV-6】 Samaritans가 구사하는 자살사고 방지 메시지의 두 사례

3. 예방접종 이론과 자살예방 메시지 전략

예방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에 입각하여 만들어지는 메시지, 곧 예방접종 메시지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적이지 않은’ 메시지와 비교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메시지와 비교될 수 있는 일반적 메시지는 반대주장을 담고 있지 않은 메시지, 일방적 메시지 혹은 단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메시지³⁸⁾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컨대, 예술영재 청소년에게 자살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메시지 전달자가 의도하는 입장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전달하면 되는데, 이것이 ‘예방접종적이지 않은’ 메시지이다.

그렇다면, 예방접종 메시지는 예상할 수 있는 반대주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메시지라고 간략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McGuire(1964)가 처음으로 제시한 예방접종이론에 토대를 둔다. 수용자의 기존 태도를 공격할 개연성을 가진 설득적 메시지에 대한 면역력·저항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³⁹⁾ 그 설득적 메시지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강도는 약한 주장을 포함시키는 메시지(예방접종메시

38) 반대되는 주장을 전혀 언급함이 없이 특정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린다.

지)를 사전에 전달하여 사후 설득적 메시지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그에 대해 반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이론의 핵심이 있다(Pfau, 1992; Pfau & Kenski, 1990; Pfau & Van Bockern, 1994; Pfau, Van Bockern, & Kang, 1992; Wan & Pfau, 2004; 김준홍·윤영민, 2010; 이준웅, 2002; 차배근, 1978).

이를 예술적 창의성이 뛰어난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적용해 보면, 이들이 정신건강에 취약하며 따라서 언젠가는(어쩌면 임박한 장래에) 자살생각이나 충동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그 때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견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중재를 가하는 방식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수 있다.

한마디로, 향후 예상되는 공격적 설득적 메시지에 대한 저항 기제를 밝히면서 이를 현실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예방접종메시지의 구성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한다(McGuire, 1964; Wan et al., 2004). 하나는 위협요소(threat component), 다른 하나는 선제논박(preemptive refutation)이다. 위협요소(사례에서 자살위험이 조만간 높아질 수 있음을 부각하는 것)는 수용자의 기존 신념·태도가 나약하다는 점과 임박한 미래에 그 신념·태도가 반대의 설득적 메시지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성시키고 경고하며, 나아가 공격을 받게 될 때 기존 신념·태도를 유지(약화되지 않음)할뿐더러 되레 강화시키겠다는(Banas & Rains, 2010) 저항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선제논박(사례에서 자살의 고위험 상태, 예를 들어 자살생각, 자살충동 등에 직면할 때 강력해지는 생각과 견해를 반박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제)은 예상되는 공격적 메시지의 주요 주장의 설득 과정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차단하고 방어하여 기존 신념·태도로부터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메시지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흥미롭게도 ‘예방접종’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은 사람의 몸에 소량의 약한 바이러스를 사전에 투입하여 강력한 바이러스의 사후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항체를 생성시킨다는 미생물학의 원리를 유추하여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적용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소량의 약한 바이러스를 투입하지 않은 메시지라고 유비적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Wan 등(2004)에 따르면, 일방적 메시지만의 전달보다는 양면적 메시지 전달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 메시지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예방접종메시지에서 반대주장을 미세한 방식으로나마 언급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예상되는

39) 수용자의 기존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고 설득적 메시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된다.

공격에 대한 저항적 메시지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득에 대한 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과연 자살과 관련한 메시지에 예방접종이론의 전략이 통용될 수 있을까? 이 이론이 적용되어 온 이슈 분야가 1960년대에는 질병검진을 위한 X선 촬영, 치솔질의 이슈 등, 1970년대에는 유전자조작식품, 동물실험, 도박, 총기소지 이슈 등으로 주제가 옮겨가는 등 점차로 확대되어 갔지만(Banas et al., 2010),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접종이론이 취급해 온 이슈 분야에 아직까지 자살예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살위험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수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자살에 대한 수용적·허용적 입장이 있음을 일정 부분 언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살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관대한 태도 및 견해는 합리적 토대를 근거로 하는 자살의 수용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살이 개인의 고유 권리이라든지,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든지, 불치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화된다고 여기는 시각 등이다(Joe, Romer, & Jamieson, 2007; 김준홍·정영일, 2011). 그러나 이런 태도 및 견해는 대중적 신념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대중의 지배적인 자살관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태도, 곧 자살을 정신질환, 패륜, 일탈행동 등으로 규정하거나 자살에 대한 공개적인 이야기를 아예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우며(Alvarez, 1990; Eskin et al., 2011) 이러한 자살담론 지형은 자살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접종메시지 전략을 구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아주 약한 소량의 바이러스나마 사람들에게 반대주장을 알려주는 것, 곧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살의 긍정적 측면을 메시지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일반인들(김준홍·정영일, 2011)과 자살시도자들(김준홍·윤영민, 2010) 집단에서 공히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메시지 전략이 유효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자살위험이 비교적 높고 따라서 죽음과 자살생각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 예술영재와 같이 정신건강의 취약성과 자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에 대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특히 예방접종 메시지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살예방 메시지를 어떻게 예방접종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까? 우선 이득 혹은 손실프레임의 틀을 가지고 전달되는 메시지를 단지 일반적 옹호메시지가 아니고 반대주장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 예방접종 메시지가 되도록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손실 프레임의 메시지의 경우 보다 용이하다. 아래의 손실 프레임의 틀로써 전달되는 자살예방 메시지가 동시에 예방접종 메시지가 됨을 알 수 있다. ‘자살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해주는 해결책·돌파구가 될 수 있다’ 와 같은 공격 메시지에 저항하게 만드는 예방접종 메시지인 셈이다. 이는 예컨대 ‘자살은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이며,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최악이자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자살 관련 태도를 강화시키고자 의도한 메시지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와 같이 미래시점에 직면하게 될 공격 메시지에 저항하게 하는 예방접종 메시지를 사전에 접함으로써 그러한 공격적 설득 메시지에 대한 반박 의견과 저항동기를 형성하게 된다면, 자살고위험집단의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포함하여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제작되고 전달되는 메시지에 사전 예방접종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생명사랑 UCC 공모전의 수상작 역시도 예방접종 메시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드물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메시지와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권고하는 웹사이트도 유사한 실정이다.

예방접종 메시지에는 모범적 전형(exemplar)의 인물이 등장하여 내러티브를 구사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적일 수 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은 자살기도를 결국 이루어내지 못한 한 동성애자 청소년을 내세우는데, 그는 자살기도가 실패한 것이, 자신의 삶의 경이로움에 비추어 볼 때, 행운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굳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괴롭혔던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자살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을 마치게 되었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결국 생의 역경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극복한 모범이 될 만한 인물상을 제시하는 것이 자살 전문가의 정보제공보다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높을 수 있다(Niederkrotenthaler et al., 2010).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장차 유사한 역경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청소년에게 그러한 역경 - 주변의 편견과 가해 - 이 만들어내는 공격적 메시지에 저항하게 만드는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다.

예방접종 메시지는 위협요소 외에도 선제적 논박으로써 예상되는 공격적 메시지의 주요 주장의 설득 과정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메시지는 일본 아키타시(秋田市) 자살대책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쇄물의 콘텐츠 화면이다. 제시 방식은 예방접종이론에서 말하는 선제적 논박의 형태이다. 자살에 대한 대중의 통념적 인식을 지적하고 이를 교정하는 식으로 자살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죽고 싶다’ 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교정과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림 IV-7】 손실프레임의 예방접종 메시지



【그림 IV-8】 Trevor Lifeline의 모범 인물의 내러티브 메시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같은 예술영재를 육성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예술영재의 특수성을 얼마나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수성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예술영재는 스스로의 역량뿐만 아니라 취약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진술은 아니지만, 창의성의 대가(代價)로서 때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와 상황도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일반인이나 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종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메시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예술영재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지나친 편견이나 오해를 교정하는 사회적 이득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死にたい」という人は 本当に自殺しない?

誤解

「自殺」を嫌った場合は、
自殺の危険性が非常に高くなっています。
自殺をする人の多くは、
誰かに自殺したいと打ち明けています。
その小さな「サイン」に気づいてください。

もし、「死にたい」と相談されたら?

- 誰でもいいから打ち明けたのではないです。じっくり時間をかけて話を聞いてください。
- つらい気持ちに共感しながら、話を傾けましょう。
- 首めたり、頭ましたり、世間一般の常識を押し付けたりすることは避けましょう。
- 十分に話を聞いたうえで、他の選択肢について一緒に考えましょう。
- 「自殺しない」と約束してもらうことは有効です。
- 自殺の危険が迫っているときは、専門家に相談を勧めてください。

自殺予防3つの基本認識

1. 自殺は言い込まれた末の死
2. 自殺は防ぐことができる
3. 悩みを抱えながらもサインを発している

(厚生労働省「自殺予防」)

つながってますか? 誰かと

秋田市の自殺の現状

近年、自殺死者は全国的に増加しており大きな社会問題となっていますが、秋田市においても、平成18年では100人の市民が自ら命を落としています。誰かといつでも相談できるような、人と人とのつながりがある地域をつくり、お互いに支え合って自殺をなくしていきましょう。

自殺のサイン、見逃さないでください!

自殺の背景はさまざまな要因が複雑に関連していますが、自殺を考えている人は、悩みを抱えながらも、何らかのサインを発しています。このサインを見逃さず、周囲の支えで自殺は予防できることが多いです。

身近にある『こころの風邪』

「こころの風邪」とも言われるうつ病は、ストレスが溜かたり長く続くことで身体や心に影響を及ぼし、日常生活に支障をきたしてしまう病気です。重くはなりかたが異なる病気ですが、中には自殺まで追い込まれるなど深刻な状況に至る病気です。

あなたの周りにそんな人いませんか?

うつ病を疑うサイン

- ☐ 以前と比べて表情が暗く元気がない
- ☐ 体調不良の訴えが多くなる
- ☐ 仕事でミスが多くなる
- ☐ 周囲との交流を避けるようになる
- ☐ 趣味やスポーツ、外出しなくなる
- ☐ 飲酒量が増える

うつ病が疑われたら

- どんなふうに調子が悪いのかということや、きっかけについて尋ねてください。
- 眠れない日が続いたり、うつ病の症状が強く自覚の仕事、家事などが困難であれば、休養と治療を勧めてください。
- 医療機関(かかりつけ医・精神科)、保健所や精神保健センターなどで相談するよう勧めてください。誰かが付き添ってください。
- 本人が受診を拒否した場合、本人が信頼している家族、先輩、友人などから受診を勧めてもらってください。
- 無理に話を聞かせたり強要をせず、本人がその気になるまで待つてください。

【 그림 IV-9 】 일본 아키타시(秋田市) 인쇄물의 선제논박

4. 예술영재 청소년의 역량 강화의 사례

앞에서 예술영재 청소년을 자살위험이나 정신건강 취약성으로 볼 때 연약한 집단으로 일정 부분 간주하고 묘사하였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프레임 이론과 예방접종 이론을 원용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메시지를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 사례를 논평하면서 논의하였다. 프레임 이론과 예방접종 이론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메시지 구성요인을 설명하는 논의구조라기보다도 미세한 혹은 근본적 조정을 통해 특히 예술영재 청소년을 향한 기발하고도 공감적인 자살예방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분석틀이다.

본 절에서는 예술영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예술 분야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정신보건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예술영재의 창의성과 정신건강은 반비례 관계(trade-off)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예술영재를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행복감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쉽게도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증진에의 예술영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 문화예술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역할모델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역할모델로서 Hospital Audiences, Inc.라는 비영리기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기관은 지난 1969년 Michael Jon Spencer⁴⁰⁾가 문화적 소외계층이 많은 뉴욕사람들의 문화예술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육체와 정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발달장애자들, 휠체어사용자들, 병상에 움썽달짝 못하는 사람들, 시·청각장애인들, 홈리스, 연약한 노인들,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 중독프로그램 참여자들, 에이즈환자들, 교정 복지시설의 수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특히 현대 문화와 예술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시각 및 행위예술 장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요한 보건 이슈인 에이즈, 결핵, 폭력예방, 노숙자, 마약중독, 기타 정신건강 이슈들에 관한 중요 정보를 ‘예술을 통하여’ 제공하여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도와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들 역시 중요한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HAI는 뉴욕시 교육국의 대표대행자 중 하나로서 브로드웨이, 매디슨스퀘어가든, 라디오시티, 뮤직홀, 링컨센터, 브루클린센터 등의 이벤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매개로 예술영재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문제 등 정신건강에의 예술을 통한 중재는 특히 뛰어났다는 시민들의 평을 받았다.

40) 그는 故 Ms. Alice Tully의 기부금으로 비영리단체 HAI를 설립한 정신과의사이자 피아니스트이다. 예술의 치료적 힘을 강조하는 그는 주정부산하 병원들을 순회하며 매회 천명이 넘는 환자들을 콘서트에서 만나 연주한 경험 끝에 이 일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술은 HAI 홈페이지(<http://hainyc.org/>) 일부 자료와 뉴욕시의 HAI 프로그램 참여자인 익명의 자원봉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http://www.youtube.com/watch?v=ZuH9OZIxAS8>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였다.



※ 출처: HAI 홈페이지(<http://hainyc.org/>) 자료

【그림 IV-10】 HAI와 프린스턴대학교의 911 테러이후 정신건강에의 기여

5. 소결

본 사례중심 연구의 결론은 정신건강과 자살위험에 관한 한 예술영재 청소년의 취약성과 역량강화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보건역학의 실증적 근거에 따르면(Andreasen, 2008; Nettle, 2006), 예술영재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의 감수성과 창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의 위협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술영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레임 이론이나 예방접종 이론도 보다 창의적이고 비평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술영재 청소년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유약한 구성원이 사회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메시지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예술영재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이를 적절하게 발휘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방법을 완벽하게 연구할 수는 없다”는 스칸디나비아 격언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살에 이르는 경로는 복잡하고도 수많은 요인들에 의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는 길도 완벽하게 연구할 수 없다. 메시지 전략은 그 일환이며, 우리가 자살위험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연구할 때, 이 이슈의 복잡성 및 역동성과 더불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아픔을 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다. 한국의 예술영재들을 위한 자살예방 메시지 전략 연구는 적어도 그런 가치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제언⁴¹⁾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영재’로 구분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이슈와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취약성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타 집단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지에 대한 검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추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예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상충되는 결과들이 많다. 하지만 한예종 학생들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영재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민감성, 예술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불안정성, 타이트한 교육과정과 높은 기대수준, 경쟁적인 학교 풍토, 도제식교육의 위계적인 사제관계, 불분명한 예술계 진로 전망 등으로 인해 한예종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나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탁월한 성취를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비단 예술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업적을 남긴 대가들이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영재교육기관은 해당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41) 5장은 안선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탁월한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고 준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이 필수불가결하다. 경쟁력을 기르고 보다 나은 결과물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생기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나, 자신이 원하거나 외부에서 요구되는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도 피해가기 어렵다. 그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야만 전문예술인으로서 잘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예종 구성원 간에도 이러한 규범은 공유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술영재청소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힘든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부담이나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일만한 정신건강 상태까지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영재청소년들도 정신건강에 문제를 경험할 경우 이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전한 정신건강은 탁월한 성취를 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계속 발전하는데 기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예술영재청소년들이 영재교육기관의 일원으로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 결과, 한예종학생들은 심한경쟁과 경쟁적인 토대 관계, 높은 기대수준과 강도 높은 훈련, 엄격한 지도방식, 수면부족을 포함한 불규칙한 생활방식 등과 같이 탁월성과 차별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될 수 있는 요인에 의해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정서적 민감성으로 인해 예술영재청소년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더욱 심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들은 또한 우수한 재능을 갖고 있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쉽게 찾지 못하는 예술계 노동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예술계 노동시장의 개선은 관련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예술인들이 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현재의 불안정한 예술계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학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학교 차원에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어떤 이유에서건 원래 계획했던 진로가 아닌 경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도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낙오했다는 좌절감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예종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예술영재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의적 특징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정신건강지원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한국사회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이나 책임의 범위에 대해 논의가 최근에야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선진국의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건강지원서비스가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한예종도 예외가 아니다. 예술영재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서비스를 논의하기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학교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다룰 지에 대한 입장마저도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11년의 연이은 한예종 학생들의 자살사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고, 정신건강대응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들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시기는 이러한 노력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학교의 노력에 대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면담조사를 통해 제기된 한예종 학생들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또한 해외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정신건강서비스 사례는 향후 한예종 뿐만 아니라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구축해나갈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제도 마련, 학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감지하고 도움을 주거나 의뢰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산, 예술교육에서 필수적인 비평을 바람직한 방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 개발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등은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사항들이다.

3) 예술영재청소년의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본 연구에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예술영재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메시지를 구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찾아보았다. 자살예방메시지를 구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집단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창의성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구상할 때 유머를 사용하여 거부감이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미래에 자살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저항할 수 있는 메시지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예방접종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메시지 전략도 예술영재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 이와 함께 예술영재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타인뿐만 아니라 예술영재청소년 스스로에게 자신들이 가치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경험을 통해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2. 제언

1) 학교리더십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및 장기적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기초적인 정신건강지원서비스도 갖추지 않은 교육기관도 적지 않다. 한예종의 경우 2011년에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검사, 교수들과의 면담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 외부 정신건강 서비스와의 연계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검사나 상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학교의 리더십을 포함하여 한예종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한예종이 추구하고 있는 전문예술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이루는데 선행되어야 하며, 만일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한예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오히려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기관이 전문적인 정신건강기관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내에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며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야 한다(기본적인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총장을 비롯한 리더들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발적인 사업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연계성을 가진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강화,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안전망 강화

(1) 상담 및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강화

한예중 학생들은 학교의 상담서비스가 학생들의 상담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한예중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대한 학교 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인력과 서비스가 학생들의 서비스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랜 대기 시간 때문에 상담 받기를 포기하거나, 심화된 상담을 원하지만 인력부족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예술영재청소년의 복합적인 정신건강 취약 요인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만일 학교 내 자원으로 정신건강지원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외부자원을 아웃소싱을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 휴학, 복학 과정에 대한 지원

휴학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정신건강적 어려움 때문에 휴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학 신청은 위기에 처한 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담당교수와 학과장의 서명을 받는 행정적 절차 이상의, 휴학 사유와 학생이 학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휴학 기간 중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그들의 향후 복학 시기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기 학생 식별 및 초기개입

한예중 내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졌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주위 학생들이다. 서로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 대학처럼 자신이나 친구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살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특징, 이러한 사인을 감지했을 때 주위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고,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조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찾아내고 전문적인 도움에 의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이트키퍼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내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다.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의미있는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보편적이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한예중에서도 나타난다. 비록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수나 학생들의 정보와 관심 부족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적절한 도움을 주고, 추천하며,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활용을 장려하는 노력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 낙인효과를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3) 학업 지원 강화 및 교수방법 개선

(1) 학업 지원

영역이 무엇이든, 영재교육기관의 목적은 해당 분야의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면담참가자의 대부분은 한예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탁월성, 차별성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에 대해 거부감이나 이의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예종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문예술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학교에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학하여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명망이 높은 교수진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다수의 한예종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되는 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소수에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는 것이 크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풍토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소수에 속하지 못하고 낙오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불안해한다.

이러한 풍토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예종이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성장하게 돕는 것에 일차적인 교육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영재교육기관으로서 한예종은 일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예종에 입학한 본래 목적인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문예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천부적 재능, 혹독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태도나 자질, 그 외에도 많은 요건들이 필요할 것이고, 한예종에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입학 시 계획과 상이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학교와 각 학과의 교수진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각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면담조사에서 한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개개인의 발전을 최대한 돕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된 학생 지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진로 지도 시 대안적인 진로에 대한 안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크리틱 방법에 대한 교수 및 학생 대상 교육

많은 한예종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교수나 동료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작업에 대한 비평을 듣는 시간을 쪼갰다. 비평을 통한 수업은 예술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신이 힘들여 노력한 성과물에 대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예중 학생들에게 비평수업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주 원인은 비평 수업 자체라기보다, 거친 언어표현, 불분명한 기대 수준, 대안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비난처럼 느껴지는 피드백 등이다.

건설적인 비평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크리티크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재 학생의 작업 결과물과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음을 교수와 학생 모두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크리티크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솔직하되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표현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크리티크의 교육적 의미와 수용방식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작업의 질을 높이고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예중의 문화와 맥락에 적합한 비평수업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앞서 이론적 배경을 다룬 2장에서 제시된 온타리오대학이나 런던예술대학의 비평에 대한 기본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수립된 비평수업의 원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비평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원칙을 유인물 등을 통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로 크리티크를 통한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건설적인 크리티크를 주고 받을 수 있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원칙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진의 경우, 크리티크가 학생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강도 높은 크리티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위해 심사숙고한 의견이라는 점을 학생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 내 인간관계 및 풍토 개선

(1)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한예중 학생들은 한예중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나 동료 학생들과의 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예중 구성원들에게 학교 풍토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고립’, ‘개인주의’, ‘단절’ 등이었다. 학교 내에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한정적이며, 축제와 같은 학교 전체 행사가

열려도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업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영역의 경우 동일학과 내 학생들 간 교류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예중 학생들의 소극성이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과와 학생들 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운동과 같은 여가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자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를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들로 조망하기 보다는 서로의 독특성을 가지있게 여기고, 예술이라는 공통된 관심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학교풍토와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졸업한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높이고,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서로의 관심사나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기초 역량 개발

한국의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은 인간관계나 갈등해결 기술과 같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기초 역량들을 청소년기에 기르지 못하고 오직 대학입학에 필요한 준비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경향을 낳고 있다. 이에 더해 예술영재청소년의 경우 개성과 주관이 뚜렷하고, 고유성과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만의 예술영역을 구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예중 학생들 중 수면부족,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갈등해결 기술, 시간 관리 및 여가활용 등에 대한 특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5) 진로지도

한예중 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진로 전망이나 진로의 유형에 대해 탐색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한예중과 같은 명성이 높은 학교에 입학할 경우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목표를 이루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 되면서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현상은, 자신이 희망했던 진로방향 이외에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예종 학생들 중 상당수는 어린 시기부터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린 시기부터 오랜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꿈꿔온 진로 이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낙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열악한 예술계 노동시장과 진로 전망에 대해 일정 정도 알고 있으나, 근로조건이나 사회적지위 보다는 예술가적 자부심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도 발견되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타인과 스스로에게서 받기도 하지만, 오랜동안 희망했던 진로 이외에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정보나 안내가 전혀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표현은 진로에 대한 한예종 학생들의 사고를 잘 설명한다.

전문예술인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이 분야에서 너의 성공 가능성은 없으니 다른 길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를 교수가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진로 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과 진로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예술영재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메시지 전략

예술영재청소년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살예방메시지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살예방메시지를 구상할 때에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집단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성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예술영재청소년에게 거부감이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방적이고 훈계식의 자살예방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

고 있는 기존의 자살예방메시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한예중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7) 사회기여 기회 확대

한예중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재능과 역량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타인을 돕는 봉사 경험이 도움을 주는 사람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타인에게 의미있는 도움을 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성취감, 타인과의 교류와 공감 경험을 통한 소속감,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재능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기회를 통한 역량의 개발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예중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돕거나 지역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권장하고 지원한다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권지숙. (2008). **영재의 완벽주의 특성과 또래관계 성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0). 국악 영재 발굴을 위한 영재성 평가 방안. **국악교육연구**, 4(1), 31~54.
- 김수현 (2010). 예술과 창의성, 그리고 예술영재교육. **민족미학**, 9, 79~97.
- 김준홍, 김유석, 김승현 (2010).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이밍 학술문헌의 메타연구. **커뮤니케이션이론**, 6(1), 229~294.
- 김준홍, 윤영민 (2010).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메시지의 설득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IDS 질병영역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4(1), 83~123.
- 김준홍, 정영일 (2011). 한국인의 자살시도의 위험요인: 자살관과 사생관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28(2), 109~122.
- 김혜영. (2008). **중학교 수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희 (2003).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창의성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1-16.
- 박종화 (2005). **예술영재와 과학영재의 학습 및 가족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경희 (1993). **한국에서의 음악영재의 발굴과 교육의 방향**. 음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 오주일 (2004).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한 음악영재성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애. (2003). **초등학교 아동의 시각예술영재성 판별준거 개발**.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 85~153.

- 정은선. (2004). **미술연재교육현황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욱 (2011).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 Issue & Focus**, 84, 1~8.
- 차배근 (1978). 커뮤니케이션학적 접근이론에 관한 소고. **한국언론학보**, 11, 1~29.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재교육진흥법.
- Alvarez, A. (1990). *The savage God: A study of suicide*. New York: Norton.
-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09).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spring 2008 reference group data report (Abridged).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5), 477-488.
- Andreasen, N. C. (1987). Creativity and mental illness: Prevalence rates in writers and their first-degree relativ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1288-1292.
- Andreasen, N. C.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mood disorder.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0(2), 251~255.
- Arnautovska, U. & Grad, O. T. (2010). Attitude toward suicide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Crisis*, 31(1), 22~29.
- Austin, A. B., & Draper, D. C. (1981). Peer relationships of the academically gifted: A review. *Gifted Child Quarterly*, 25, 129-133.
- Banas, J. A. & Rains, S. A. (2010). A meta-analysis of research on inoculation theory. *Communication Monographs*, 77(3), 281~311.
- Bland, L., Sowa, C., & Callahan, C. (1994). An overview of resilience in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17, 77-80.
- Chinman, M., Imm, P., & Wandersman, A. (2004). *Getting to outcomes™ 2004: Promoting accountability through methods and tools for planning*,

-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Chung, H., & Klein, M. (2007). Improving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college health. *Aetna Student Health Spectrum*, 13–19.
- Clark, G. A., & Zimmerman, E. (1992). *Issues and practices related to identifi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in the visual arts*. Storrs, C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University of Connecticut.
- Dai, D. Y., & Schader, R. M. (2002). Decisions regarding music training: Parental beliefs and values. *Gifted Child Quarterly*, 46(2), 135–144.
- Dauber, S. L., & Benbow, C. P. (1990). Aspects of personality and peer relations of extremely talen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34(1), 10–14.
- Davidson, Laurie, & Locke, J. H. (2010). *Using a public health approach to address student mental health*. In J. Kay, & V. Schwartz (Eds), *Mental health care in the college community* (pp. 267–28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Ltd.
- Davis, G. A., & Rimm, S. (1977). Characteristics of creatively gifted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521, 46–551.
- Davis, H. B., & Connell, J. P. (1985). The effect of aptitude and achievement status on the self-system. *Gifted Child Quarterly*, 29, 131–135.
- DeJong, W., & Langford, L. (2002). A typology for campus-based alcohol prevention: Moving toward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ppl.* 14, 140–147.
- Drum, D. J., Brownson, C., Denmark, A. B., & Smith, S. E. (2009). New data on the nature of suicidal crises in college students: Shifting the paradigm. *Professional Psychology*, 40(3), 213–222.
- Eisenberg, D., Golberstein, E., & Gollust, S. E. (2007a). Help-seeking and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in a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Medical Care* 45(7), 594–601.
- Eisenberg, D., Golberstein, E., Gollust, S., & Hefner, J. (2007b).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al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4), 534-542.
- Eskin, M., Voracek, M., Stieger, S., & Altinyazar, V. (2011).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suicidal behavior and attitudes in Austrian and Turkish medical stud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6, 813~823.
- Farberow, N. (2000). *Helping suicide survivors*. In D. Lester (Ed.), *Suicide prevention: Resources for the millenium* (pp.189~212). Ann Arbor, MI: Sheridan Books.
- Feist, G. J. (1998). A meta-analysis of personality in scientific and artistic crea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 290-309.
- Freeman, J. (1994). Some emotional aspects of being gifted.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7, 180-197.
- Gallagher, J. J. (1975). *Teaching the gifted child*(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Gallagher, R. P. (2009). *National Survey for Counseling Center Directors*. Arlington, V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unseling Services.
- Gardner, H. (2002). *Learning from extraordinary minds*. In M. Ferrari (Ed.), *The pursuit of excellence through education*(pp. 195-21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 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 Gould, M.S., & Davidson, L. (1988). Suicide contagion among adolescents. In A.R. Stiffman, & R.A. Feldman (Eds.), *Advances in adolescent mental health* (pp. 29-59). Greenwich, CT: JAI Press.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 Hallahan, K. (1999). Seven models of framing: Implications for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1(3), 205~242.
- Helson, R.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creative personality in women. *Creativity*

- Research Journal*, 12, 89–102.
- Heston, L. L. (1966). Psychiatric disorders in foster-home reared children of schizophrenic moth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2, 819–825.
- Hofstee, W. K. B., de Raad, B., & Goldberg, L. R. (1992). Integration of the big five and circumplex approaches to trait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46–163.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IQ 180: Origin and development*. Yonkers-on-Hudson, NY: World Book.
- Indiana University Center for Postsecondary Education. (2009).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Retrieved on August 31, 2010, from http://nsse.iub.edu/_/?cid=217
- Institute of Medicine.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P.J. Mrazek, & R.J. Haggerty (Eds), Committee on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Division of Biobehavioral Sciences and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Jacobs, J. C. (1971). Rorschach studies reveal possible misinterpretations of personality traits of the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16, 195–200.
- Jamison, K. R. (1989). Mood disorders and patterns of creativity in British writers and artists. *Psychiatry*, 52, 125–134.
- Jamison, K. R. (1993). *Touched with fire: Manic-depressive illness and the artistic temperament*. New York: Free Press.
- Jed Foundation, & mtvU. (2006). *College mental health study: Stress, depression, stigma & students: Executive summary*. Retrieved on August 30, 2010, from http://www.halfofus.com/_media/_pr/mtvuCollegeMentalHealthStudy2006.pdf.
- Joe, S., Romer, D., & Jamieson, P. E. (2007). Suicide acceptability is related to suicide planning in U.S.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2), 165~178.
- Kahnemann A. & Tversky D.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alichman, S. C. & Coley, B. (1995). Context framing to enhance HIV-antibody-testing messages targeted to African American women. *Health Psychology, 14*, 247~254.
- Kaufman, J. C. (2003). The cost of the muse: Poets die young. *Death Studies, 27*, 813-822.
- Kaufman, J. C. (2005). The door that leads into madness: Eastern European pets and mental illnes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7*, 99-103.
- Kaufman, J. C. (2009). *Creativity 10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err, B. (1991). Smart girls, gifted women: Special guidance concerns. *Roeper Review, 8*, 30-33.
- King, L. A., McKee-Walker, L., & Broyles, S. J. (1996). Creativity and the five factor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189-203.
- Klein, M., & Chung, H. (2008, Spring). The CBS-D project: Transforming depression care on college campuses -Part II. *Aetna Student Health Spectrum, 3-8*.
- Langford, L. (2006). *Preventing violence and promoting safety in higher education settings: Overview of a comprehensive approach*.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Center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evention.
- Langford, L., & DeJong, W. (2001). *How to select a program evaluator*.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Center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evention.
- Leith, G. (1972).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creativity under two conditions of stres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2*(3), 240-247.
- Ludwig, A. M. (1995). *The price of greatness*. New York: Guilford Press.
- Ludwig, A. M. (1998). Method and madness in the arts and scienc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1*, 93-101.
- Maslow, A. H. (1973). *Creativity in self-actualizing people*. In A. Rothenberg & C. R. Hausman, (Eds.), *The creative question*(pp. 86-92). Durhammm: Duke

- University Press.
- Matthews, G. (1986). The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and arousal on performance: Are creativity tests anomalou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751–761.
- May, R. (1976). *The courage to create*. New York: Bantam.
- McCrae, R. R. (1987). Creativity, divergent thinking, and openness to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258–1265.
- McGuire, W. J. (1964). Inducing resistance to persuasion: Some contemporary approach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 pp. 191–229). New York: Academic Press.
- McLeroy, K.R., Bibeau, D., Steckler, A., & Glanz, K. (1998).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health promotion programs. *Health Education & Behavior*, 15(4), 351–377.
- Meyerowitz, B. E. & Chaiken S. (1987).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on breast self-examination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00~510.
- National Research Council, & Institute of Medicine. (2009). *Preventing mental,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among young people: Progress and possibilitie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Nettle, D. (2006). Schizotypy and mental health amongst poets, visual artists, and mathematicia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876~890.
- Niederkrötenhaler, T., Till, B., Herberth, A., Voracek, M., Kapusta, N. D., Etzersdorfer, E., Strauss, M. and Gernot, S. (2009). The gap between suicide characteristics in the print media and in the population.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4), 361~364.
- O' Keefe, D. J. & Jensen, J. D. (2008). Do loss-framed persuasive messages engender greater message processing than do gain-framed messages?: A meta-analytic review. *Communication Studies*, 59(1), 51~67.
- O' Keefe, D. J. & Jensen, J. D. (2009). The relative persuasiveness of gain-framed

- and loss-framed message for encouraging disease detection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Health Communication*, 27, 776-783
- Ochse, R. (1990). *Before the gates of excellence: The determinants of creative geni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W., & Adkins, K. (1995). Perfectionism and the gifted. *Roeper Review*, 17, 173-176.
- Pfau M, Van Bockern, S. (1994). The persistence of inoculation in conferring resistance to smoking initiation among adolescents: The second yea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0(3), 413~430.
- Pfau, M. & Kenski, H. C. (1990). *Attack politics: Strategy and defense*. New York: Praeger.
- Pfau, M. (1992). The potential of inoculation in promoting resistance to the effectiveness of comparative advertising messages. *Communication Quarterly*, 40, 26~44.
- Pfau, M., Van Bockern, S., & Kang, J. G. (1992). Use of inoculation to promote resistance to smoking initiation among adolescents. *Communication Monographs*, 59, 213-230.
- Picklesimer, B.K., Hooper, D. R., Ginter, E. J., (1998). Life Skills, Adolescents and Career Choic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0(3), 272-282.
- Renzulli, J. S. (1986). 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e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pp. 53-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on, T., & Benbow, C. (1990). Long-term effects of acceleration on the social-emotional adjustment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464-470.
- Roberts, S. M., & Lovett, S. B. (1944). Examining the "F" in gifted: Academically gifted adolescents' physiological and affective responses to scholastic failure.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7, 241-259.
- Rothman A. J. & Salovey, P. (1997). Shaping perceptions to motivate healthy

- behavior: The role of message framing. *Psychological Bulletin*, 121(1), 3~19.
- Rothman, A. J., Bartels, R. D., Wlaschin, J., & Salovey, P. (2006). The strategic use of gain- and loss-framed messages to promote healthy behavior: How theory can inform practice. *Journal of Communication*, 56, 202~220.
- Roy, D. D. (1996). Personality model of fine artis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9, 391~394.
- Sadre, M. & Brock, L. J. (2008). Systems in conflict: Labeling youth creativity as mental illness.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19(4), 358~378.
- Schneider, B., & Daniels, T. (1992). Peer acceptance and social play of gifted kindergarten children. *Exceptionality*, 3, 17~29.
- Shen, L. & Dillard J. P. (2007). The influence of behavioral inhibition/approach systems and message framing on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health messages. *Communication Research*, 34(4), 433~467.
- Silverman, M. (2008, April 18) Campus security begins with caring.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Retrieved on August 30, 2010, from <http://chronicle.com/article/Campus-Security-Begins-With/36211>.
- Silvia , P. J., Winterstein, B. P., Willse, J. T., Barona, C. M., Cram, J. T., Hess, K. I., et al. (2008). Assessing creativity with divergent thinking tasks: Explor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new subjective scoring method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2, 68~85.
- Simonton, D. K. (1975). Age and literary creativity: A cross-cultural and transhistorical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6, 259~277.
- Simonton, D. K. (2009). *Genius 10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04). *Promoting mental health and preventing suicide in college and university settings*. Newton, M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Inc.
- Steinberg, R.J. & Davidson, J.E. (1985).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gifted and talented. In F.D. Horowitz & M. O' Brien (Eds.), *The gifted and talent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37~74). Washington, DC: American

-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ernberg, R. J. (1993). *The nature of cre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 Terman, L. M. (1925).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1954). Scientists and non-scientists in a group of 800 gifted men. *Psychological Monographs*, 68, 1-44.
- Terman, L. M., & Oden, M. H. (1947). The gifted child grows up: Twenty-five years follow up of a superior group. *Genetic Studies of Genius*(Vol. 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 Oden, M. H. (1959). *The gifted group at mid-lif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e Jed Foundation. (2006). *Framework for developing institutional protocols for the acutely distressed or suicidal college student*. New York, NY: Author.
- The Jed Foundation ·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2011). A guide to a campus mental health action planning. Retrieved on July 15, 2012, from http://www.sprc.org/sites/sprc.org/files/library/CampusMHAP_Web%20final.pdf.
- The Jed Foundation ·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09). Comprehensive approach to suicide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promotion. Retrieved on July 15, 2012, from [http://www.sprc.org/sites/sprc.org/files/Comprehensive %20Approach%20Orientation%20slides.pdf](http://www.sprc.org/sites/sprc.org/files/Comprehensive%20Approach%20Orientation%20slides.pdf).
- Torrance, E. P. (1961). Problems of highly creative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5, 31-34.
- Tversky D. & Kahnemann A. (1981). The framing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 Wan, H. & Pfau, M. (2004).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inoculation, bolstering, and combined approaches in crisis communica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 Research*, 16(3), 301~328.
- Webb, J. T., Meckstroth, B., & Tolan,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Columbus: Ohio Psychology Publishing.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inner, E. (1996).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Basic Books
- Yarhouse, M. A. & Turcic, E. K. (2003). Depression, creativity, and religion: A pilot study of christians in the visual ar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4), 348~355.
- Zimmerman, B. (2003). *Self-regulation and Learning*. In W. M. Reynolds & G. E. Mill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Vol. 7. Hoboken, NJ: John Willy & Sons, Inc.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ttp://www.arts.ac.uk/student/studentservices/healthwellbeing/mentalhealth>
/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livingisforeveryone.com.au/> 2012년 7월 3일 인출
- <http://www.ofcom.org.uk/tv/ifi/codes/bcode>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risd.edu/>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saic.edu/lifeatsaic/wellnesscenter/counselingservices/>
- <http://www.thetrevorproject.org/takeaction> 2012년 7월 3일 인출
- <http://www.youtube.com/watch?v=vFwsyLdEs8Y> 2012년 7월 3일 인출
- <http://hainyc.org> 2012년 7월 3일 인출
- <http://www.arts.ac.uk/student/studentservices/healthwellbeing/counselling/>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jedfoundation.org>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jedfoundation.org/professionals/programs-and-research/campusmhap>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juilliard.edu/student-life/health.php>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mentalhealthscreening.org/screening/?keyword=SAIC>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ocadu.ca/Assets/image_media/Health-Wellness/Guidelines+for+Students+in+Crisis.pdf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ocadu.ca/students/health-wellness.htm>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saic.edu/index.html>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saic.edu/media/saic/pdfs/lifesaic/wellnesscenter/Emotionally_Distressed_Students.pdf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studentdepression.org/>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youtube.com/watch?v=GVbxc1RSkQY&feature=related> 2012년 6월 30일 인출
- <http://www.youtube.com/watch?v=ZuH9OZIxAS8> 2012년 6월 30일 인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health of artistically and musically talented youths and identify the support schools need to provide to improve their psychologic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of youths is important especially because if appropriate intervention is not provided for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it can lead to serious maladaptive behavior in their later life.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 given to the psychological health of artistically and musically talented youths in Korea. Even though there is no firm basis to conclude that artistically and musically talented youths are more vulnerable in mental health, we need to understand how their uniqueness and circumstances affect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member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e found that artistically and musically talented youths are experiencing a high level of stress due to their innate emotional sensitivity, psychological instability caused by their work, tight school curriculum and heavy workload, competitive school culture, strongly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their professors and uncertain prospect for their future career. Based on these results, we articulated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ole of school leadership, establishing a long-term road-map and action plans, strengthening the security net, improving academic support and instructional methods, enhancing school climate, polishing suicide prevention message strategies, and expanding opportunities to serve others with their talent.

key words: artistically and musically talente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rtistically and musically talented youth, psychological health of youth, suicide, suicide prevention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운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범죄유발적 자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b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또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침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보고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연구: 한예종사례를 중심으로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9. 3. 18 제385-2009-00005호

인쇄처 나모기획 전화 02)503-545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